

세월호 참사 이후 구원과 관련

언론 보도 백서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중심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

세월호 참사 이후 구원과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중심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

목차

들어가는 말 004

I. 세월호 사건의 왜곡된 언론보도 008

1. 세월호 사건 언론보도의 문제점

- 「세월호 보도...저널리즘의 침몰」 ‘본질 희석보도’를 중심으로

- 1) 세월호 참사 언론보도의 다섯 가지 문제점
- 2) ‘본질 희석 보도’의 대표적인 사례, 구원파 관련 보도
- 3) ‘반성과 다짐 그리고 제언’ 중에서

2. 세월호 사고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보도 분석

- 1) 총 수집자료
- 2) ‘세월호 참사’와 ‘오대양 자수 사건’의
보도 진행과정 비교
- 3) 사고 이후 50일간 보도 총량 비교

Ⅱ.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언론대응 024

1.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언론대응 일지
2. 언론대응 주요 쟁점(정정 및 반론 쟁점 목록)

Ⅲ. 기독교복음침례회 언론대응의 결과 040

1. 언론사 정정 및 반론보도 리스트
2. 주요 언론사별 정정 및 반론보도문
3.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현황
4. 언론사별 합의 진행 현황
5. 기독교복음침례회 언론대응의 한계

들어가는 말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 서해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꺼져 갔고 172명의 생존자들과 남겨진 유가족들은 오늘도 슬픔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멋진 싱어송라이터가 되고자 했던 한 단원고 학생처럼, 자신의 꿈을 아직 펼쳐 보지도 못한 채 떠나간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제주도에 내려가 가족과 귀농 생활을 꿈꿨지만 결국 우리 곁을 떠난 한 가장의 사연처럼,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전해들을 때면 그저 마음이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이러한 세월호 참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기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했고, 진심으로 애도했으며 이 날을 앞으로도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다짐했습

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 역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그들의 이웃으로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눈물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언론과 각종 인터넷 미디어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온갖 비난과 모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보도로 인해 저희들이 받은 아픔과 고통 정도는 참사 희생자들의 슬픔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보도로 인해 저희 신도들은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사치로 여겨질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무차별적인 비난 보도와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허위 악의 보도, 정치권력에 편향적인 보도와 상업성에 빠져 버린 선정적 보도,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선 돌리기식 보도들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언론계 자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정도로 대한민국 언론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막장드라마같은 이 보도에 우리가 굳이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치 용단폭격같은 무차별적 보도에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에게 과연 이에 대응

할 힘이 있는지. 그러나 이를 그냥 넘어간다면 마녀사냥식의 잘못된 보도행태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본 교단은 늦게나마 오보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본 백서는 그 일련의 과정과 결과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왜곡된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방송기자연합회’의 「세월호 보도, 저널리즘의 침몰」이라는 책을 인용하여, 세월호 보도의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 ‘구원파’ 관련 보도에 대하여 사고의 원인, 즉 본질을 희석시키는 왜곡된 언론보도의 폐해를 2014년 4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사를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본 교단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잘못된 언론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된 잘못된 오보와 추측성 보도들에 대해 정정, 반론 보도 청구권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얻은 결과와 한계점에 대한 기록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잘못된 보도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과 대안들이 필요할 지에 대해 고민한 흔적들을 정리했습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로 거짓을 진실로 알고 있을 수많은 이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알리는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5. 4. 9.

기독교복음침례회

일러두기

- 본 백서는 2015년 9월 4일까지 진행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에서 보도된 텔레비전 뉴스와 주요 일간지 그리고 인터넷 매체의 기사에 한하며 라디오와 해외 언론은 불가피하게 빠졌습니다.

I. 세월호 사건의 왜곡된 언론보도

세월호의 아픔은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 중 간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극성 보도로 유가족을 두 번 죽이고 국민을 수치스럽게 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같은 많은 추가적 피해자를 만들어 낸 언론보도이다. 언론의 무차별적인 비난 보도와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허위 악의 보도, 정치권력에 편향적인 보도와 선정성을 앞세운 상업적 보도,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선 돌리기식 보도들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을 향해 쏟아졌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간이 지나고 진실이 드러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언론보도는 희생양을 찾던 정권과 자극적 기사만을 찾던 언론이 만나 본질을 호도하는 수준을 넘어 진실을 파문는 역할을 자처하게 된다.

1. 세월호 사건 언론보도의 문제점

- 「세월호 보도…저널리즘의 침몰」 ‘본질 희석보도’를 중심으로

- 1) 세월호 참사 언론보도의 다섯 가지 문제점
- 2) ‘본질 희석 보도’의 대표적인 사례, 구원파 관련 보도
- 3) ‘반성과 다짐 그리고 제언’ 중에서

2. 세월호 사고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보도 분석

- 1) 총 수집자료
- 2) ‘세월호 참사’와 ‘오대양 자수 사건’의 보도 진행과정 비교
- 3) 사고 이후 50일간 보도 총량 비교

1. 세월호 사건 언론보도의 문제점

- 「세월호 보도...저널리즘의 침몰」, 「본질 희석보도」를 중심으로

4월 16일 이후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으며, 언론계 일부에서 자성이 이어졌다. 언론인들의 반성의 목소리는 최근 〈방송기자 연합회〉에서 발간한 「세월호 보도...저널리즘의 침몰」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책은 세월호 보도를 ‘세월호 보도 참사’로 표현하며 세월호 보도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책 그리고 반성을 소상하게 담고 있다.

1) 세월호 참사 언론보도의 다섯 가지 문제점

〈방송기자 연합회〉의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재난보도 연구분과’에서 발간한 「세월호 보도...저널리즘의 침몰」에서는 세월호 보도 참사의 유형과 문제점을 ‘사실 확인 부족’, ‘자극적·선정적 보도’, ‘권력편향적 보도’, ‘본질 희석 보도’, ‘누락 축소 보도’의 다섯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 데 이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위 서적 11쪽 ~ 70쪽)

① 사실 확인 부족 받아쓰기 보도

“방송들의 세월호 보도 참사는 ‘전원구조’라는 속보 자막에서

시작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오보가 나온 배경은 과도한 속보 경쟁 속에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받아쓰기 보도’가 원인이 됐다는 것이 분과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결론적으로 속보 경쟁에 휘말린 언론사들이 팩트 확인 과정 없이 받아쓰기식 보도 경쟁에 나섰고, 역으로 관계부처 또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또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온 국민을 혼란 속에 빠뜨렸던 것이다.”

②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선정적 보도

“수많은 탑승자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채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망보험금’을 언급한 것은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참사 당일, 가족이 모두 실종된 채 혼자 구조된 6살 아이의 인터뷰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 공포에 질린 어린 아이를 상대로 인터뷰하면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취재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고 현장의 기사를 연결해 ‘영켜있는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고, 앵커 멘트를 통해 같은 보도를 몇 차례 반복했다. ‘영켜있다’는 등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으로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충분했다.”

③ 권력 편향적 보도

“특히 대통령이 세월호 실종자(희생자) 가족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가족들의 항의나 고함이 터져 나온 대목은 현장취재를 해 놓고도 리포트에서는 빼거나 해당 부분을 들어내는 식으로 왜곡 편집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판받은 일들이 많았다. 그런데 방송사들은 이런 사안을 발생 당시엔 보도하지 않다가 당국의 해명이나 조치가 나온 뒤에 보도하는 형태를 보였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5월 19일, 방송들은 양적으로 풍성하게 관련 뉴스를 전달했다. 그러나 내용 전달에 치중했을 뿐 비판적인 시각은 전혀 담지 않았다.”

④ 본질 희석 보도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방송 뉴스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씨와 그가 속한 구원파에 맞추기 시작했다.”

“안전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윤지상주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관리감독 체계, 전혀 작동하지 않는 매뉴얼, 무능한 정부기관간의 불협화음 등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온갖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특정 종교의 문제로 몰아가고, 여기에 이단종교라는 분위기

기까지 더한 전형적인 ‘본질 희석’ 보도였다.”

“유병언 뉴스는 사이비종교적 뉘앙스가 덧칠된 구원파, 그리고 기상천외한 도피행각 등이 맞물리면서 세월호 참사와는 상관 없이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⑤ 누락 축소 보도

“대표적인 것이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의 발언이었다. 정부 기관들이 모두 책임 회피에 급급한 세월호 구조작업의 컨트롤 타워가 실종됐다는 여론이 비등하던 4월 23일 김장수 안보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날 KBS, MBC, SBS, YTN 모두 이 보도를 누락했다.”

“침몰 사고와 별도로 배 안에서 1명의 생존자도 구조하지 못한 해경의 잘못된 초기 대응이 큰 원인이었다. 그러나 방송들은 해경에 대한 비판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소극적 보도가 청와대 개입 때문이라는 사실이 KBS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의 폭로로 밝혀졌다.”

“해경이 관련된 유착 의혹에 대해 방송들은 그 이전부터도 보도에 소극적이었다. 구조작업을 사실상 주도한 ‘언딘 마린 인터스트리’(언딘)라는 민간업체에 해경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실종자 가족들이 이에 항의하고 신문들이 유착 의혹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지만 방송은 한동안 이를 누락시켰다.”

2) ‘본질 희석 보도’의 대표적인 사례, 구원파 관련 보도

이번에는 기독교복음침례회를 대상으로 극대화되었던 ‘본질 희석 보도’에 대한 위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언급된 것과 같이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어졌어야 마땅할 ‘세월호’ 뉴스는 정부의 책임회피와 언론의 권력 편향적 보도로 인해 ‘구원파, 유병언’ 뉴스로 변질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은 사회에서 수많은 비난과 공분을 샀고 학교와 직장에서 말 못할 차별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42쪽~52쪽)

(4) 본질 희석 보도

3백 명이 넘는 탑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바다 속으로 침몰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면서 대한민국은 충격과 공포로 인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대형 참사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을 불러일으켰고, 우왕좌왕하는 정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구조 과정, 그리고 가족들의 애처로운 모습까지 더해지면서 우리사회는 점점 더 깊이 ‘세월호 참사’의 블랙홀로 빨려들어갔다.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과 단체,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비난이 쏟아졌고, 언론 역시 이 참사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사고 일주일째,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방송 뉴스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씨와 그가 속한 구원파에 맞추기 시작했다. 특히 구원파 관련 뉴스에는 종교적인 신비주의가 더해지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 시점부터 점차 ‘세월호’ 뉴스는

‘유병언과 구원파’ 뉴스로 변하기 시작했다. 안전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윤 지상주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관리감독 체계, 전혀 작동하지 않는 매뉴얼, 무능한 정부기관간의 불협화음 등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온갖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특정 종교의 문제로 몰아가고, 여기에 이단종교라는 분위기까지 더한 전형적인 ‘본질 희석’ 보도였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호 참사 관련 뉴스는 분량이 줄어들었지만, 유병언 씨에 대한 뉴스는 꾸준히 이어졌다. 사실상 검찰이 금수원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구원파 신도들과 충돌했고, 유병언 일가는 자취를 감춘 채 수사기관과 숨바꼭질을 벌이는 등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양산됐다. 월드컵 기간이 지나면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나 구조 과정의 문제, 관리 감독의 문제 등을 파헤치는 뉴스는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지만, 유병언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거의 사라졌던 세월호 관련 뉴스만은 예외였다.

특히 행방이 묘연하던 유병언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거의 사라졌던 세월호 관련 뉴스는 다시 봇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말 그대로 세월호 뉴스가 아닌 ‘유병언 뉴스’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모든 방송뉴스가 유병언 소식을 연일 톱으로 다루면서, 이따금씩 세월호 구조 상황이나 재판 소식 정도를 덧붙이는 뉴스가 이어졌다. 그나마 세월호 관련 참사 100일에 맞춰 다시 한 번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뉴스들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곧바로 다음날부터 다시 유병언 뉴스가 이어지고, 그마저도 열흘 정도 만에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세월호로 시작해 유병언으로 끝난 ‘본질 희석’과 ‘왜곡 뉴스’의 결말이었다.

유병언 뉴스는 사이비종교적 뉘앙스가 덧칠된 구원파, 그리고 기상천외한 도피행각 등이 맞물리면서 세월호 참사와는 상관없이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특히 아들 유대균 씨와 도피행각을 함께한 여성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방송 보도는 세월호 참사라는 본질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호기심을 알 권리로 둔갑시켜 한 여성의 인생을 발가벗기는 이른바 옐로저널리즘의 전형이었다. (후략)

3) ‘반성과 다짐 그리고 제언’ 중에서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제언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각 방송사와 신문사의 기자들이 각기 다른 표현으로 써 내려간 반성의 문장들은 모두가 한결 같이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진정한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자성의 목소리는 한국 언론과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양분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해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본다.(200쪽 ~ 204쪽)

‘본질’을 보도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국민적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사고 이후 정부의 대처 과정 때문입니다.

사고 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고 직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어떤 이유로 제대로 손도 못 쓰고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켰는지가 이번 사태의 본질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YTN 보도는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원파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발표와 정부의 일방적 대책만 나열하면서 정작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구조 실패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분석이나 비판은 상대적으로 묻혀가고 있습니다.

유병언 일가와 금수원이 세월호 참사의 본질인양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본질을 왜곡하는 이 같은 보도는 YTN이 ‘정권의 의도만 살피는 방송’이라는 시청자들의 비난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세월

호 참사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를 해야 합니다!

YTN호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시급합니다.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YTN은 무분별한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면서 오보를 양산했습니다. 나라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는데 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면 서도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후략)

-2014년 5월 23일 YTN노조

진정한 사과와 본질 보도, 정치적 독립을 요구한다.

YTN노동조합과 기자협회, 카메라기자협회, 방송기술인협회 대표들은 2014년 5월 29일 연석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사측에 대한 요구사항들에 합의하였다.

또한 현재 노조와 직능단체 대표들이 파악한 내용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현장 취재진과 일선 직원들이 겪고 있는 내부 시스템 상의 문제점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향후 사원 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취합해 YTN의 공정성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안 제시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 논의 내용

(중략)

2. 본질을 가리는 세월호 참사 보도 초점

현재 YTN의 보도는 마치 '유병언만 잡으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하다. 유병언 일가의 범죄 행각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냉철한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빨치산'같은 사정 당국의 감정적 표현을 여과없이 인용하여 추격과 검거 과정에만 함몰돼 유병언 검거가 참사의 귀결인 양 몰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온

국민에게 충격과 좌절을 안겨준 사고 이후 구조 과정에 대한 본질적인 보도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시청자들로부터 세월호 참사 국면을 피해가려는 권력의 정치적 의도에 발맞추는 방송으로 비난 받을 소지를 키우고 있다. (후략)

-2014.5.30.

언론노조 YTN 지부, YTN 기자협회, YTN방송기술협회

2. 세월호 사고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보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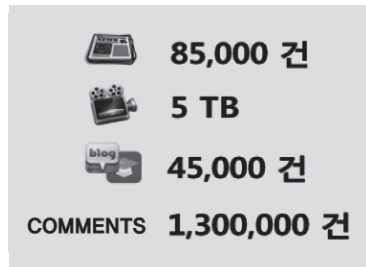
2014년 4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언론 등 310여 곳의 언론사들이 85,000여 건의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된 보도를 쏟아내었으며, 대부분의 기사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거나 때로는 악의적으로 왜곡된 기사들이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신도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바탕으로 뉴스 영상, 신문 지면, 인터넷 페이지 등 엄청난 양의 기사 정보를 수집하였다.

보도 내용을 짚어가는 동안 보도의 흐름을 살펴보니, 본 교단이 1991년에 겪었던 ‘오대양 자수 사건’의 보도 흐름과 비슷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기사량을 집계하면서 ‘직접적인 세월호 사건 관련 보도 횟수’와 ‘구

원파 관련 보도 횟수'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도 밝혀낼 수 있었다.

1) 총 수집자료

2014년 8월부터 '구원파' 관련 기사의 전수 조사를 시작하여 주요 일간지의 PDF파일과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의 뉴스 동영상 파일, 그리고 각 언론사 닷컴과



인터넷 언론들의 보도 페이지를 캡처하여 저장하였으며, 주요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 사이트의 댓글 및 블로그와 카페 등 SNS 게시물들도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신문기사로는 85,000여 건, 컴퓨터 파일 용량으로는 5TB(테라바이트)에 이르며, 기타 블로그나 지식인 게시글 수는 45,000여 건, 댓글은 130만여 건에 이른다. 이는 본 언론대응 활동에 동의한 신도들의 자발적 활동에 의해 수집된 자료이다. 본 지면을 빌어 바쁜 일과 시간을 쪼개서 작업에 동참해 준 모든 신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 '세월호 참사'와 '오대양 자수 사건'의 보도 진행과정 비교

세월호 사건의 보도 진행과정을 분석하면서 교단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던 1991년 당시와 여러 가지 유사점을 발견하게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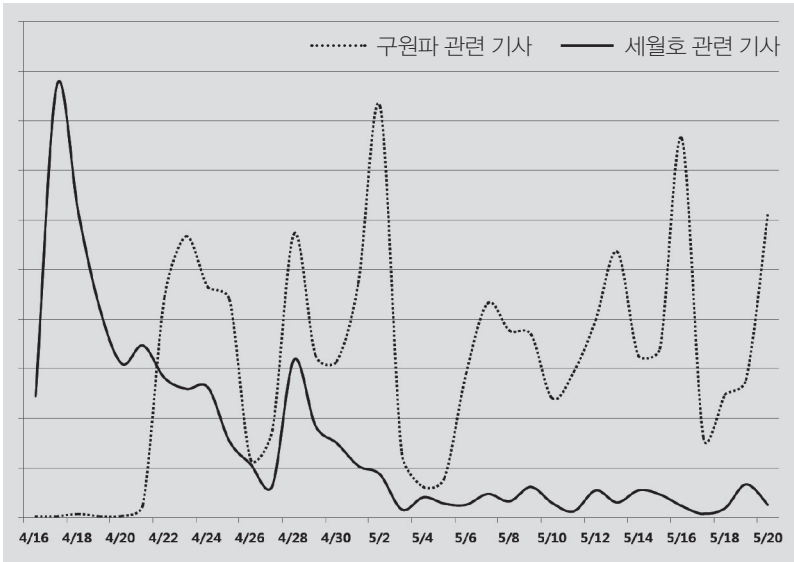
었다. 1991년 ‘수서택지비리사건’¹⁾, ‘강경대구타치사사건’²⁾ 등의 당시 정권의 최대 악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해 8월, 1987년 오대양 사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구타치사 당사자들이 자수를 하게 된다. 당시 검찰과 언론이 ‘오대양의 배후에 구원파와 유병언이 있다.’는 설을 배포하여 정권의 위기를 회피하였던 양태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의 보도 진행 과정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
- 1) 수서사건은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투기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던 강남구 수서-대치지역 공공용지 3만5500평이 당시 개발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었으나, 서울시가 이곳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26개 주택조합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촉발된 비리사건. (중략) 이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와 정치권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장병조 청와대비서관과 정태수 한보그룹회장, 오용운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서비리사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2) 1991년 4월 26일 명지대생 시위 도중 이 학교 학생 강경대(20살, 경제학과 1년)가 경찰사복체포조(일명 백골단)의 집단구타로 숨진 사건. 사건 발생 다음날 정부는 안응모(安應模) 내무장관을 문책경질, 사태를 조속히 매듭지으려 했으나, 전민련·국민연합 등 재야단체들은 <범민대책회의>를 구성, 대통령 대국민사과와 내각총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5·1노동절 기념행사 및 강군사건규탄대회> <백골단해체결기대회> <민자당해체결기대회> 등 ‘공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를 조직, 연인원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정권퇴진투쟁이 이어졌다. (후략) [네이버 지식백과] 강경대폭행치사사건 [姜慶大暴行致死事件]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9.10, 가람기획)
-

		1991년	2014년
발단	배경	· 강경대구타치사사건 · 강기훈유서대필사건 · 수서택지비리사건	· 강기훈유서대필사건 무죄 · 국정원대선개입논란 · 국정원간첩조작사건
	내용	· 1987년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 관련자 자수	· 세월호 침몰 사고
	사실	· 박순자와 추종자들이 집단자살 · 오대양에서 집단폭행치사 관련자 자수	· 세월호 침몰 사고로 300여 명 사망
전개	검찰	· 오대양사건조사로 시작해놓고 구원파라는 사이비 종교이미지로 만들어감 · 사건과 관련 없는 유병언 사기 혐의로 구속	· 세월호 침몰 책임자 조사로 시작해놓고 구원파라는 사이비 종교 이미지로 만들어감 · 사건과 관련 없는 유병언 일가의 배임 횡령 등 수사
	언론	· 자수 배후에 구원파 유병언 있 다고 호도 · 오대양과 무관한 구원파 파헤 치기 혈안 · 구원파 교리 등을 날조하여 반사회적인 집단 만들기 · 탁명환, 정동섭 등 구원파를 반대하는 인물을 총동원 · 구원파 개개인들의 인권 철저히 무시	· 세월호참사와 구원파 유병언이 관련있다고 호도 · 오대양과 무관한 구원파 파헤 치기 혈안 · 구원파 교리 등을 날조하여 반사회적인 집단 만들기 · 정동섭, 이청 등 구원파를 반대 하는 인물을 총동원 · 구원파 개개인들의 인권 철저히 무시
	국세청	· 관련 회사 전방위적인 특별 세무 조사 (1991년 전체 추정세액 200억원 이상)	· 관련 회사 전방위적인 특별 세무 조사

결말	구원파 유병언	· 참고인 조사 소환에 자진 출두한 유병언을 바로 구속 · 오대양 주범으로 이미지를 만든 후 과거 무혐의 처리된 사건을 결론만 다르게 하여 상습사기 혐의로 4년형 처벌 · 구원파는 '오대양 구원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사이버 이단으로 낙인찍힘	· 기독교복음침례회 사무국 압수 수색 · 구원파 신도들 긴급체포 (대부분 무혐의) 및 통화목록과 통장기록 등 무단 조회 · 유병언 전 회장 도피 중 사망 · 유병언 전 회장 일가 구속 및 실행 · 관련 회사 사장단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실행 · 구원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있는 반사회적인 종교집단으로 낙인찍힘
	정부	· 오대양 구원파 이슈몰이로 정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들을 국민의 관심 밖으로 돌림	· 구원파 유병언 이슈몰이로 세월호 사고 원인과 관련된 의혹들을 국민의 관심 밖으로 돌림
등장 인물	김기춘	· 법무부 장관	· 대통령 비서실장
	정홍원	·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오대양사건 담당	· 국무총리
	박찬종	· 오대양의 배후에 구원파와 유병언이 있다고 음해	· 세월호의 배후에 구원파와 유병언이 있다는 의혹 제기
	정동섭	· 오대양의 배후에 구원파와 유병언이 있다고 음해	· 세월호의 배후에 구원파와 유병언이 있다는 의혹 제기

3) 사고 이후 50일간 보도 총량 비교



위 그래프는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이후 50일간의 세월호 사건 자체에 대한 기사 건수(실선)와 ‘구원파’ 및 유병언에 대한 기사 건수(점선)를 비교한 것이다.

2014년 4월 21일을 기점으로 세월호 사고 자체에 대한 기사보다 ‘구원파’와 유병언 관련 기사가 압도적인 수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3일 이후 세월호 관련 기사는 일당 50건을 넘지 않은 반면 ‘구원파’ 관련 기사는 일당 평균 400건 이상으로 거의 8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4월 21일부터 세월호 사건 이후 「세월호 보도…저널리즘의 침몰」에서의 ‘본질 희석 보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Ⅱ.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언론대응

기독교복음침례회는 2014년 4월 21일 본 교단과 관련된 뉴스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오해로 인식하여 바로 언론대응을 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오해의 폭과 파장이 커지면서 2014년 4월 24일 최초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 보도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의 행태로 인해 공정보도를 요구하는 시위를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진행하였다.

이후 언론대응은 성명서 발표 등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의도적으로 편파보도를 지속하거나 신도들의 생존권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하였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한 대응도 이루어졌다. 주요한 언론대응은 사실 확인 없이 보도되었거나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본 교단 신도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언론대응 일지

2. 언론대응 주요 쟁점(정정 및 반론 쟁점 목록)

1.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언론대응 일지

① 기독교복음침례회 공식 기자회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2014년 4월 21일부터 본 교단과 관련된 뉴스가 급증했고, 날이 갈수록 오해의 폭과 파장이 커지면서 2014년 4월 24일 최초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기자회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날짜** 2014년 4월 24일
- **장소** 용산구 크라운호텔
- **발표자** 김성일, 변우섭, 이용화, 이은우
- **내용** 이준석 선장 및 세월호 선원의 ‘구원파’ 신도설 등 해명 및 언론의 공정정보도 요구

② KBS 시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시위를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KBS본관 앞에서 진행하였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거나 언론의 편파 보도에 분노한 전국 신도 1,0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일부 신도들은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시기에 동 시위가 적절하지 않음을 걱정하기도 했다. 시위는 KBS 간부와의 면담으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마무리되었다. 시위 개요는 아래와 같다.

- 날짜 2014년 4월 28일 ~ 5월 1일
- 장소 여의도 KBS 본관 앞
- 참여인원 전국 신도 1,000여 명
- 내용 언론의 공정보도 요구와 KBS 사장 면담요청

③ KBS 뉴스토크 인터뷰

4일간의 KBS 시위 이 후, KBS 간부진과의 면담을 통해 오보에 대해서 직접 해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본 교단의 의료인회 회장을 맡고 있던 구회동 전문의가 약 10분간의 인터뷰를 통해 잘못 보도된 내용을 반박하였다.

- 날짜 2014년 5월 2일 (PM 2:00 10분간 방송)
- 장소 여의도 KBS 본관
- 출연 구회동 기독교복음침례회 의료인회 회장
- 내용 오대양과 본 교단 연관설 부인 및 잘못 보도된 교리 등 설명

④ 종편 출연 및 전화 인터뷰

이후 다른 언론에서도 출연 및 전화인터뷰 요청이 있어 이에 이태중, 조계웅 두 대변인과 구회동 의료인회 회장이 대응하였다.

- 날짜 2014년 5월 16일 ~ 6월 21일
- 장소 YTN, TV조선, MBN, JTBC, 채널A, 뉴스Y 등
- 출연 구회동 의료인회 회장, 이태중 대변인, 조계웅 대변인
- 내용 언론 보도 및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표명

⑤ 성명서 발표

언론에 본 교단에 대한 오해를 수차례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편파적인 보도를 계속하자, 모종의 배후가 있다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으며 검찰의 편파수사와 언론의 편파보도를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날짜** 2014년 5월 15일 ~ 6월 13일
- **장소** 금수원
- **발표자** 이태중 대변인, 조계웅 대변인

⑥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금수원 단독 취재

일부 객관적 태도를 유지해 온 언론과는 별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에게 금수원 내부를 단독 취재토록 허용하였다.

- **날짜** 2014년 5월 16일
- **장소** 금수원
- **인원** 이태중 대변인 외 2명
- **내용** 금수원 공개와 사고에 대한 기독교복음침례회 입장 표명

⑦ 오대양 관련 오보 언론인 대상 명예훼손 일괄 제소

오대양 사건과 관련하여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한 국내 약 30여 명의 기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들어 고소하였다.

- **날짜** 2014년 5월 16일
- **장소** 금수원 정문 기자회견 자리
- **인원** 국내 약 30명의 기자
- **내용** 오대양 관련된 악의적인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⑧ 금수원 기자초청 간담회

금수원이 폐쇄적이라든지 호화시설이라는 등 오보 및 자극적인 기사가 계속 보도되었다. 이에 금수원을 공개하여 잘못된 보도로 인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 **날짜** 2014년 5월 18일
- **장소** 금수원
- **대상** 국내외 50여 개 언론사 100여 명 기자 (사전 신청 언론사로 취재를 제한하려 했으나 당일 외신 등 일부 언론사들의 추가 요청이 많아 대부분 허용. 단 MBC, SBS, TV조선, 뉴데일리, 국민일보 5개 언론사는 상대적으로 많은 왜곡 보도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취재 불허)
- **내용** 금수원을 공개하여 잘못된 보도로 인한 오해를 바로잡음

⑨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 (1~2차)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세간의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참석을 예정했던 외부 발표자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참석을 포기하면서 포럼은 두 차례로 마무리되었다.

- **날짜** 2014년 6월 15일, 6월 29일
- **장소** 징글벨랜드 세미나장
- **인원** 200명 내외 기자 초청
- **내용** 세월호 사고 침몰의 원인과 관련해 언론과 정부의 발표 자료에 대한 의혹 제기

⑩ 팟캐스트 런칭

교단 내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하여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했다.

- **날짜**: 2014년 6월 29일(첫 방송)

⑪ ‘구원파’ 관련 보도 기사 전수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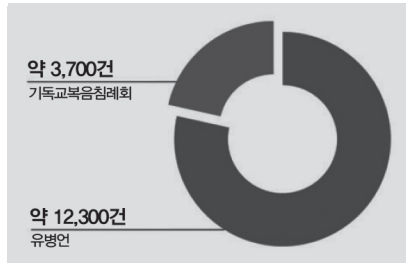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항의와 함께 추가적인 희생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언론중재위 제소를 시작했다. 그 첫 번째 단계로서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본 교단 관련 보도의 전수조사를 통해 85,000여 건의 기사를 검토하게 된다.

- **날짜** 2014년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 **대상** 포털에서 검색되는 ‘구원파’ 관련 뉴스를 보도한 모든 언론사들
- **진행 과정**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위하여 310여 개 언론사들의 총 85,000여 건의 기사 리스트 정리하고 일간지 지면 PDF 및 지상파와 종편 및 보도채널의 뉴스 동영상 파일을 수집 정리함

⑫ ‘구원파’ 관련 오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 접수

1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위한 기사분류 작업, 신청서 접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4년 4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구원파’ 관련 기사는 총 85,000여 건이 집계되었으며, 이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적인 조정 신청을 한 기사가 16,000여 건이었다. 이 중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관련 내용이 3,700여 건이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내용이 12,300여 건이었다.



- 날짜 2014년 8월 중순부터 2015년 2월 중순까지
- 인원 150여 명(기사 분류,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진행 과정 세월호 참사 이후 ‘구원파’ 관련 85,000여 건 보도 중, 정당한 오보 기준에 해당하는 16,000여 건의 기사를 분류하고, 각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 신청서 접수 진행

⑬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및 당사자간 합의 진행

이태종 전 대변인 등 10여 명의 핵심 자원봉사자가 언론중재위 심리 이후 당사자간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통합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기사 수정, 삭제 등이 이루어졌다.

- 날짜 2014년 9월 중순부터
- 인원 10여 명
- 진행 과정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에 따라 심리를 통해서 언론사로부터 정정 및 반론 보도를 받거나, 언론사의 일괄합의 의사가 있을 경우 2014년 9월 중순까지 수집한 전체 오보 기사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서 통합정정 반론보도문 게재하고 전체 기사 리스트에 대하여 수정, 삭제 혹은 하단게재 등을 진행함

2. 언론대응 주요 쟁점(정정 및 반론 쟁점 목록)

2014년 4월 21일부터 ‘구원파’ 관련 기사를 지상파나 종편에서 단독 보도하고 이를 수많은 주요 일간지 닷컴들과 인터넷 언론사들이 인용보도를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같은 내용의 오보들이 하루에 수백 건씩 양산되었다.

100여 개의 언론사들이 245건의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요 오보 쟁점들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대분류		기사내용	보도형태
1 청해진해운	1-1	이준석 선장은 구원파다.	정정/반론
	1-2	선사 직원의 대부분(다수)이 구원파다.	정정/반론
	1-3	청해진해운은 종교교육을 통해 직원을 구원파로 만든다.	정정/반론
	1-4	청해진해운 직원의 90% 이상이 구원파 신도다.	정정/반론
	1-5	청해진해운은 교인이 아니면 채용하지 않는다.	정정/반론
	1-6	세월호 사고 당시 가장 먼저 구조된 사람들은 구원파 신도였다.	정정
2 금수원	2-1	금수원은 유병언 전 회장의 소유이다.	정정/반론
	2-2	금수원은 일반인의 통제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정정/반론
	2-3	구원파 교인들은 금수원 안에서 농사를 지으며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	정정/반론
	2-4	금수원 내에 있는 시설은 대부분 불법 시설이다.	반론
	2-5	금수원 내에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진료를 위한 치과 시설이 발견되었다.	반론
	2-6	금수원 내에 지하벙커 시설 등이 있다.	정정

3 교리	3-1	구원파는 구원받은 후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	반론
	3-2	구원파는 기도를 부정한다.	반론
	3-3	구원파는 예배를 부정한다.	반론
	3-4	유병언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다. (유병언의 일이 하나님 일이다)	반론
	3-5	구원파에서는 종말론을 발미로 재산을 갈취한다.	반론
	3-6	구원파는 '영적 산아 제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가르친다.	반론
	3-7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도와 태권도를 예배보다 중시하여 '유태교'라고도 불린다.	반론
4 오대양	4-1	오대양의 돈이 구원파로 들어왔다.	정정
	4-2	오대양사건 때 자살한 사람들 전원이 구원파 신도였다.	정정
	4-3	구원파는 '오대양교'이다.	정정
	4-4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사건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정
5 YB 지위	5-1	유병언 전 회장은 32명이 집단 자살한 '오대양사건' 당시 구원파의 목사였다.(유병언은 기복침 목사 출신)	정정
	5-2	구원파는 유병언을 '예수'로 여긴다.	정정
	5-3	구원파는 유병언을 '교주'로 여긴다.	정정

6 부동산	6-1	구원파가 울릉도 전체의 5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	반론
	6-2	영농조합은 유병언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다.	반론
	6-3	유병언 전 회장은 금수원인근 아파트 200여 채를 차명소유했다.	반론
	6-4	구원파는 수양회 수입으로 땅을 매입하였다.	반론
	6-5	유씨일가는 캘리포니아의 라벤더 농장과 하일랜드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다.	반론
7 신도 통제	7-1	‘킬러팀’, ‘미행팀’, ‘그림자팀’으로 불리는 집단이 실제 구원파 내에서 존재하여 탈퇴 신도들이나 구원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압박한다.	정정/반론
	7-2	구원파는 탈퇴하면 협박과 보복을 당한다.	정정/반론
	7-3	구원파에서는 신도를 가운데 세운 후 인민재판을 한다.	정정/반론
8 유병언 장학생	8-1	구원파는 ‘유병언 장학생’을 키운다.(우정학사)	반론
	8-2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구원파 신도이다.	반론
	8-3	이용욱 전 해경국장의 해경 특채 과정에서 유병언 전 회장의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 있다.	반론
9 기복침 설립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설립했다.	정정/반론
10 YB 작명	10-1	세모는 ‘모세’를 거꾸로 한 것이다.	정정/반론
	10-2	아해는 ‘야훼’라는 의미이다.	정정/반론
	10-3	세월호는 ‘세(世)’와 ‘월(越)’ 조합해 ‘세상을 초월한다’는 뜻으로 구원파의 교리인 ‘속세를 벗어나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정정/반론
	10-4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의미한다	정정/반론

11 일가 재산	11-1	특정 신탁을 사금고로 이용했다.	반론
	11-2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 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았다.	정정/반론
	11-3	유병언 전 회장은 노른자쇼핑과 국제영상의 지분 소유하고 있다.	반론
	11-4	유병언 전 회장의 일가가 보유한 재산이 2천 400억이다.	반론
12 실소유주	12-1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이다.	반론
	12-2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회장이다.	반론
13 정관계 로비 및 비호	13-1	유병언 전 회장이 사진 판 돈을 정치인들에게 뇌물로 공여했다.	정정
	13-2	각계각층에 포진한 구원파 비호세력이 유병언 전 회장 도피를 돕고 있다.(정관계 비호를 받았다.)	정정
	13-3	채규정 씨는 전북 지역에서 오랜 정치 생활을 해온 인물로, 유병언 씨의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
	13-4	유병언 전 회장은 50억 골프채를 구입하여 정관계 로비를 시도했다.	정정
14 5공 유착	14-1	전두환이 유병언 전 회장을 비호했다	정정
	14-2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과 유병언 전 회장은 친구 사이였다.	정정
	14-3	유병언 전 회장은 전두환 일가와 친했다	정정
	14-4	1980년대 초 유병언 전 회장은 통큰 불우이웃 돕기를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도 인연을 맺었다.	정정
	14-5	세모는 한강유람선의 운항권을 따내는 등 정권의 비호를 받았다.	정정

15 여성 관계	15-1	유병언 전 회장은 김혜경과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	반론
	15-2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 출신이다.	반론
	15-3	김혜경 씨가 비자금 조성 핵심이며 금고지기 (재산은닉처)이다.	반론
	15-4	신모 씨의 일기장에도 유 씨와 특별한 관계를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은 교주와 신도 이상의 관계”라고 말했다.	반론
	15-5	신모 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비서로 재직하였다.	반론
16 망명 밀항 시도	16-1	유병언 전 회장 측 인사가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다. 캐나다, 프랑스 2개 국에 망명 신청했다 거절당했다.	정정
	16-2	유병언 전 회장이 해외로의 밀항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정정
17 도피 지원	17-1	신명희(신엄마)는 어머니회 간부, 김명숙(김엄마)은 구원파 내 평신도 어머니회 간부이다. (구원파 대모 역할)	정정/반론
	17-2	구원파 신도들이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돕고 있다.	정정/반론
	17-3	유병언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왔던 이태종 구원파 임시대변인이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유씨 일가의 도피를 돕고있는 조력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정
	17-4	유병언 전 회장 도피를 지원하기 위해 60억을 모금했다.	정정

18 엄마 호칭		‘엄마’란 구원파에서 통상 지도자급에 붙이는 호칭이다.	정정
19 법정관리 악용		유병언 전 회장은 1997년 세모그룹 부도 당시 법정관리 절차를 악용하여 수백 억을 탕감받았다.	반론
20 촛불집회		유병언 전 회장의 아이디어로 촛불집회 때 유모차를 앞세웠다	정정/반론
21 SNS 지시		유병언은 신도들에게 “정부의 공격이 시작됐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론
22 한강유람선 사고		세모는 한강유람선사업 당시, 유람선 침몰로 십수명의 사망자를 낸 회사다.	정정
23 현금착취	23-1	유병언 전 회장은 신도들의 현금을 착취했다.	반론
	23-2	신도현금을 계열사 및 사업확장에 사용했다.	반론
	23-3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신도들의 노동력과 현금을 착취했다.	반론
24 경영개입	24-1	유병언 전 회장이 낮낮이 모임을 통해 경영에 개입하였다.	반론
	24-2	유병언 전 회장이 오하마나 호를 매각 지시했다.	반론
	24-3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 증축을 지시하거나 조연하였다.	반론

25 사진	25-1	신도들에게 사진을 강매했다.	반론
	25-2	달력은 500만원, 관장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했다.	반론
	25-3	유병언 전 회장의 고가의 사진 작품이 인터넷에선 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론
26 기타	26-1	구원파는 1970년대 극동방송국 운영 주체와 합의 하에 결별하지 않았다.	반론
	26-2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침몰원인이 미사일 피격 이라고 세뇌시켰다.	반론
	26-3	신도자금이 JYP에 흘러들어갔다.	반론
	26-4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렸다.	정정
	26-5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사용가능한 다섯 자루의 권총이 발견되었다.	정정

Ⅲ. 기독교복음침례회 언론대응의 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언론대응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 9월 4일 현재까지 245건의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토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향후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본 교단에 대한 잘못된 정보 등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도 만들었다. 이 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정정 및 반론 보도문들은 진실과 무관한 보도를 일삼아 온 무책임한 언론사들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언론대응이 우리 사회의 언론보도 양태를 바꾸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한계도 발견할 수 있었다.

1. 언론사 정정 및 반론보도 리스트
2. 주요 언론사별 정정 및 반론보도문
3.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현황
4. 언론사별 합의 진행 현황
5. 기독교복음침례회 언론대응의 한계

1. 언론사 정정 및 반론보도 리스트

2014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시작했다. 곧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리가 열렸고 언론사들은 구원과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8월에는 기사별로 한두 건의 정정이나 반론보도가 나왔지만 85,000여 건의 전수조사를 끝내고 16,000여 건의 접수를 진행한 이후에는 각 언론사별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게재되기 시작했다. 2015년 9월에는 그 숫자가 245개에 이르렀다. 이 목록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신도 개인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TV방송 및 신문지면에 게재된 정정 및 반론 보도문 목록은 생략하였다.

순번	날짜	언론사	제목	URL
1	2014. 08. 12	조선닷컴	'구원파 수련원 '금수원' 현장 은 철조망과 CCTV, 지역 주민 증언은" 관련 정정보도문	http://news.chosun.com/ site/data/html_dir/2014/08 /12/2014081202317.html
2	2014. 08. 12	조선닷컴	[정정보도] 검찰확인 결과, '구원파' 오대양 사건과 무관	http://news.chosun.com/ site/data/html_dir/2014/08 /12/2014081202378.html
3	2014. 08. 12	조선닷컴	청해진해운과 구원파 관련 반론보도	http://news.chosun.com/ site/data/html_dir/2014/08 /12/2014081202015.html

4	2014. 08. 14	동아 닷컴	[반론보도문] '구원파'측 "이준석 선장 등 신도 아니다"고 밝혀	http://news.donga.com/3/all/20140812/65709128/1
5	2014. 08. 14	중앙 일보	'구원파' 오대양 사건과 무관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537879
6	2014. 08. 14	JTBC	구원파 관련 반론보도문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54720
7	2014. 08. 14	아시아 투데이	구원파 관련 반론보도문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54720
8	2014. 08. 14	JTBC	'구원파' 오대양 사건과 무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54770
9	2014. 08. 25	세계 일보	[반론보도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이준석 선장 등 신도 아니다"라고 밝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8/25/20140825002883.html
10	2014. 08. 27	아시아 경제	[정정보도문]이태종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임시대변인 관련 정정보도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82711175482813
11	2014. 08. 29	뉴스1	[이태종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임시대변인 관련 정정보도]	http://news1.kr/articles/1834693
12	2014. 08. 30	조선 닷컴	[이태종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임시대변인 관련 정정보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ldir/2014/08/28/2014082802503.html

13	2014. 08. 30	이데일리	이태종 기독교복음침례회 (구원파) 임시대변인 관련 정정보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DCD=A00703&newsid=01708886606192568
14	2014. 09. 05	동아 닷컴	[바로잡습니다] 구원파 관련	http://news.donga.com/3/all/20140905/66247880/1
15	2014. 09. 11	동아 닷컴	[바로잡습니다] 오대양 사건 과 구원파 관련 무관	http://news.donga.com/3/all/20140911/66313174/1
16	2014. 09. 13	조선 닷컴	[정정보도] 검찰, '구원파' 오대양 사건과 무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13/2014091301050.html
17	2014. 09. 18	뉴스Y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오대양 사건'과 무관	http://www.news-y.co.kr/myh20140918000100038
18	2014. 09. 19	중앙 일보	[알림] '구원파' 오대양 사건과 무관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857351&ctg=
19	2014. 09. 19	JTBC	오대양과 구원파 무관 관련 정정보도문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82002
20	2014. 09. 22	티브이 데일리	[유병언 전 회장 구원파 목사 관련 정정보도문]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11374396767632016
21	2014. 09. 22	국제 뉴스	김명숙씨 보도와 관련, 정정 보도문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889

22	2014. 09. 26	조선 닷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http://news.chosun.com/ site/data/html_dir/2014/09 /26/2014092602701.html
23	2014. 10. 02	일요 신문	[정정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오대양 사건과 무관	http://ilyo.co.kr/?ac=article _view&entry_id=93870
24	2014. 10. 02	YTN	오대양 사채 구원파 유입' 파악 안 돼	http://www.ytn.co.kr/sea rch/search_view.php?s_ mcd=0103&key=201410 021444130924
25	2014. 10. 10	데일리 한국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http://daily.hankooki.com/ lpage/society/201410/dh20 141010202403137780.htm
26	2014. 10. 26	크리스천 투데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http://www.christiantoday. co.kr/view.htm?id=275849
27	2014. 10. 28	일간 NTN	[정정 및 반론보도]기독교복 음침례회(구원파)관련	http://www.intr.co.kr/news /articleView.html?idxno= 341364
28	2014. 10. 30	EBN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ebn.co.kr/ news/view/715965
29	2014. 10. 30	스포츠 동아	[정정보도문] 구원파 및 유병 언 회장, 오대양 사건과 무관	http://sports.donga.com/3/ all/20141030/67547224/1
30	2014. 10. 31	bnt뉴스	[반론보도] 기독교복음 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http://bntnews.hankyung. com/apps/news?popup= 0&nid=05&c1=05&c2=05& c3=00&nkey=2014103110 30073&mode=sub_view

31	2014. 10. 31	내일 신문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 언 관련 반론보도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26549
32	2014. 10. 31	머니 위크	청해진해운 직원 상당수가 구원파라는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4103116498093497&outlink=1
33	2014. 10. 31	메디컬 투데이	[정정 및 반론보도] 기독교 복음침례회(구원파) 관련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N628585
34	2014. 11. 02	대구 신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관련 정정보도	http://www.idaegu.co.kr/news.php?mode=view&num=146040
35	2014. 11. 03	아주 경제	[정정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 복음침례회” 관련	http://www.ajunews.com/view/20141103181327672
36	2014. 11. 03	한겨레	[유병언 전 회장 기독교복음 침례회 창립 보도 관련 정정 보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2638.html
37	2014. 11. 03	한겨레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금수원 폐열차 관련 정정보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2639.html
38	2014. 11. 03	뉴스1	구원파 및 유병언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http://news1.kr/articles/1936095
39	2014. 11. 03	아주 경제	[정정보도문] “기독교복음 침례회와 오대양” 관련	http://www.ajunews.com/view/20141103181234741

40	2014. 11. 03	아주 경제	[정정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기독교복음침례회 목사 관련(세월호침몰청해진해운 광신도집단지살오대양배후?	http://www.ajunews.com/view/20141103181120344
41	2014. 11. 03	아주 경제	[정정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 복음침례회의 관계” 관련(AJUTV세월호실소유주유병언전세모 그룹회장	http://www.ajunews.com/view/20141103180924186
42	2014. 11. 03	아주 경제	[정정보도문]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오대양” 관련	http://www.ajunews.com/view/20141103181234741
43	2014. 11. 03	아주 경제	[정정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 복음침례회의 관계” 관련	http://www.ajunews.com/view/20141103181715807
44	2014. 11. 03	아주 경제	[정정보도문]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과 기독교 복음침례회” 관련	http://www.ajunews.com/view/20141103181815227
45	2014. 11. 03	울산 매일	구원파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정정 보도문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504
46	2014. 11. 04	동양 일보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반론·정정보도문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976
47	2014. 11. 04	아주 경제	[정정보도문 종합] 유병언 전 회장 및 세월호 선장, 승무원과 기독교 복음침례회의 관계	http://www.ajunews.com/view/20141104143600467

48	2014. 11. 05	국제 신문	전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 일가 서귀포에 양식장' 관련 정정보도문	http://www.kookje.co.kr/ news2011/asp/newsbody. asp?code=0300&key= 20141105.99002222300
49	2014. 11. 06	메트로 신문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metroseoul.co. kr/news/newsview?news cd=2014110500256
50	2014. 11. 07	엑스포츠	기독교복음침례교회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www.xportsnews.com/jeco /?ac=article_view&entry_id=5179 73&_REFERER=http%3A%2F% 2Fwww.xportsnews.com%2F%3 Fskey%3Dtc%26ac%3Darticle_ search%26sword%3D%25EA% 25B8%25B0%25EB%258F%25 85%25EA%25B5%2590%25EB %25B3%25B5%25EC%259D% 258C%25EC%25B9%25A8%25 EB%25A1%2580%25ED%259A %258C%2B%25EA%25B4%25 80%25EB%25A0%25A8%2B% 25EC%25A0%2595%25EC%25 A0%2595%2B%25EB%25B0% 258F%2B%25EB%25B0%2598 %25EB%25A1%25A0%26x%3 D0%26y%3D0
51	2014. 11. 07	스포츠 투데이	[정정보도] 기독교복음 침례회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stoo.asiae.co.kr/ news/stview.htm?idxno= 2014110615042208989
52	2014. 11. 07	미디어펜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http://www.mediapen. com/news/articleView. html?idxno=53579

53	2014. 11. 07	엑스포츠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www.x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517975
54	2014. 11. 12	경제 투데이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41112152624223&ts=70252
55	2014. 11. 12	뷰티 한국	[정정보도] 유병언 청해진 해운 실소유설 보도 건	http://www.beautyhanko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52
56	2014. 11. 12	업코리아	<정정보도문>유병언 전 회장과 오대양사건 보도 관련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34543
57	2014. 11. 13	TV 리포트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602554
58	2014. 11. 13	스타 뉴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보도문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4111111114381600
59	2014. 11. 14	폴리 뉴스	[정정] 기독교복음침례회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19367
60	2014. 11. 14	컨슈머 타임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401
61	2014. 11. 14	뉴스 웨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4111416575280264

62	2014. 11. 14	아주경제	[정정·반론 보도문] 기독교 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http://www.ajunews.com/view/20141114105552869
63	2014. 11. 17	조세일보	[정정 및 반론보도] 기독교 복음침례회(구원파) 관련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11/20141117239434.html
64	2014. 11. 17	데일리그рид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보도문]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33784
65	2014. 11. 17	아이티투데이	[바로잡습니다]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79
66	2014. 11. 17	위클리오늘	[바로 잡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 비자금설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36
67	2014. 11. 17	위클리오늘	[바로 잡습니다]유병언 전 회장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설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35
68	2014. 11. 18	브레이크뉴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37880&section=sc2
69	2014. 11. 20	한국경제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12038887
70	2014. 11. 20	마이데일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201411201114231110

71	2014. 11. 20	영남 일보	[정정보도문] '기독교복음침 례회' 오대양 사건과 무관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1120.990011108113645
72	2014. 11. 21	머니 투데이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보도]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2108523088004&outlink=1
73	2014. 11. 24	경남 도민 일보	<정정보도문>기독교복음 침례회는 오대양 사건과 무관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66184
74	2014. 11. 24	스포츠 조선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12010100016080000702&servicedate=20141201
75	2014. 11. 24	한국 경제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12189677
76	2014. 11. 25	동아 닷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에 대한 정정 보도]	http://news.donga.com/3/all/20141125/68160273/1
77	2014. 11. 25	동아 닷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http://news.donga.com/3/all/20141125/68156694/1
78	2014. 11. 25	한국 경제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12510471
79	2014. 11. 25	동아 닷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http://news.donga.com/3/all/20141125/68156718/1

80	2014. 11. 25	동아 닷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에 대한 반론 보도]	http://news.donga.com/3/ all/20141125/68160282/1
81	2014. 11. 26	한강 타임즈	[유병언 전 회장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설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http://www.hg-times.com/ news/articleView.html? idxno=76952
82	2014. 11. 26	노컷 뉴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nocutnews. co.kr/news/4332308
83	2014. 11. 26	OSEN	[정정 및 반론보도] 기독교 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http://osen.mt.co.kr/ article/G1110017774
84	2014. 11. 26	국제 신문	[「23년만에 검찰 소환 앞둔 유병언 선택이 궁금」 관련, 반론보도문]	http://www.kookje.co.kr/ news2011/asp/newsbody. asp?code=0300&key= 20141126.99002185507
85	2014. 11. 27	뉴스 타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www.newstown.co. kr/news/articleView.html? idxno=188113
86	2014. 11. 27	<u>스포츠</u> 월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www.sportsworldi. com/content/html/2014/11/ 27/20141127001546.html
87	2014. 11. 28	WOW 한국경제 TV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http://www.wowtv.co.kr/ newscenter/news/view. asp?bcode=T30001000& artid=A201411280552
88	2014. 12. 02	이뉴스 투데이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http://www.ewnewsday. co.kr/news/articleView. html?idxno=354541

89	2014. 12. 03	일요 신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보도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02919
90	2014. 12. 03	환경 TV	[반론보도]기독교복음 침례회 및 유병언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 보도 건	http://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42357
91	2014. 12. 03	뉴스핌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1203000442
92	2014. 12. 03	레디앙	[정정 및 반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http://www.redian.org/archive/81541
93	2014. 12. 03	미디어스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76
94	2014. 12. 04	경제 풍월	기독교복음침례회·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http://www.econotalk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27004
95	2014. 12. 04	경제 풍월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http://www.econotalk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27006
96	2014. 12. 04	경제 풍월	유병언 전 회장의 장학생설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문	http://www.econotalk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27005
97	2014. 12. 04	세계 일보	[유병언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2/04/20141204004585.html

98	2014. 12. 05	YTN	구원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http://www.ytn.co.kr/ search/search_view.php? s_mcd=0103&key=2014 12051100157596
99	2014. 12. 05	뉴데일리 경제	유병언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http://biz.newdaily.co.kr/ news/article.html?no= 10055553
100	2014. 12. 05	한국 기독교보	[유병언 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http://www.pckworld.com/ news/articleView.html? idxno=66241
101	2014. 12. 08	천지 일보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newscj.com/ news/articleView.html? idxno=268177
102	2014. 12. 08	TV 데일리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tvdaily.asiae.co.kr/ read.php3?aid= 1418019031813277016
103	2014. 12. 08	세계 일보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segye.com/ content/html/2014/12/08/ 20141208002319.html
104	2014. 12. 09	뉴스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www.newsen.com/ news_view.php?uid=2014 12091040412341
105	2014. 12. 10	기호 일보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kihoilbo.co.kr/ news/articleView.html? idxno=586068
106	2014. 12. 10	뉴스1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news1.kr/articles/ 1993233

107	2014. 12. 10	머니 투데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21005008279861&type=1
108	2014. 12. 11	엑스포츠	구원파 관련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	http://www.xportsnews.com/jeco/?ac=article_view&entry_id=531527&_REFERER=http%3A%2F%2Fwww.xportsnews.com%2F%3Fskey%3Dtc%26ac%3Darticle_search%26sword%3D%25EA%25B8%25B0%25EB%258F%2585%25EA%25B5%2590%25EB%25B3%25B5%25EC%259D%258C%25EC%25B9%25A8%25EB%25A1%2580%25ED%259A%258C%2B%25EA%25B4%2580%25EB%25A0%25A8%2B%25EC%25A0%2595%25EC%25A0%2595%2B%25EB%25B0%258F%2B%25EB%25B0%2598%25EB%25A1%25A0%26x%3D0%26y%3D0
109	2014. 12. 11	TV 리포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619460
110	2014. 12. 11	경기 신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168
111	2014. 12. 11	경기 신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063

112	2014. 12. 11	경남 신문	[반론보도문] 기독교복음 침례회 관련 반론보도문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32993
113	2014. 12. 11	중부 일보	[정정 및 반론 보도] 기독교 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1457
114	2014. 12. 11	주간 동아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4/12/11/201412110500002/201412110500002_1.html
115	2014. 12. 12	울산 매일	바로잡습니다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8968
116	2014. 12. 12	울산 매일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오보를 바로 잡습니다.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028
117	2014. 12. 15	뉴시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news1.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10_0013349182&clD=10201&plD=10200
118	2014. 12. 15	디지털 타임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21502109919807034
119	2014. 12. 15	미디어 워치	[반론보도]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7323
120	2014. 12. 15	이투데이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38250

121	2014. 12. 15	미디어 워치	[반론보도]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7324
122	2014. 12. 15	미디어 워치	[반론보도]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7326
123	2014. 12. 15	미디어 워치	[반론보도]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7327
124	2014. 12. 15	미디어 워치	[반론보도]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7328
125	2014. 12. 15	미디어 워치	[반론보도]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7329
126	2014. 12. 15	미디어 워치	[반론보도]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7330
127	2014. 12. 15	미디어 워치	[반론보도]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7331
128	2014. 12. 16	머니 투데이 방송	[반론보도]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http://news.mtn.co.kr/v/2014121609422788162
129	2014. 12. 16	전자 신문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etnews.com/20141215000342
130	2014. 12. 17	국제 신문	[기독교복음침례회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1217.99002164104
131	2014. 12. 17	헤럴드 경제	[정정 보도문] 기독교복음침 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 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1217000190

132	2014. 12. 17	이데일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279606606319504&DCD=A00703&OutLnkChk=Y
133	2014. 12. 19	서울경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economy.hankooki.com/page/society/201412/e20141219145809117920.htm
134	2014. 12. 19	주간경향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1412191406231
135	2014. 12. 20	조선닷컴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20/2014122000216.html
136	2014. 12. 22	tbs 교통방송	[사회]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062219
137	2014. 12. 22	일요서울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07
138	2014. 12. 22	스타뉴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보도문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4122214104105544

139	2014. 12. 23	머니 위크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4122307458019273&outlink=1
140	2014. 12. 23	코나스넷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39681
141	2014. 12. 24	SSTV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www.aha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393
142	2014. 12. 24	FACT TV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8677&thread=21r03
143	2014. 12. 26	동아 닷컴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news.donga.com/3/all/20141226/68777744/1
144	2014. 12. 26	조선 닷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26/2014122602191.html
145	2014. 12. 26	문화 일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22601071421000001
146	2014. 12. 29	인천 일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2375

147	2014. 12. 30	충청 일보	<알려왔습니다>본보에서 보도한 유병언 관련 기사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0370
148	2014. 12. 30	강원도민 일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13330
149	2014. 12. 30	충청 일보	<알려왔습니다>본보에서 보도한 유병언 관련 기사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0370
150	2014. 12. 31	PBC 평화방송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47845&path=201412
151	2015. 01. 08	대구 신문	정정보도문	http://www.idaegu.co.kr/news.php?mode=view&dbg=&num=152344
152	2015. 01. 08	매일 신문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614
153	2015. 01. 09	중앙 일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5/01/09/16465896.html
154	2015. 01. 09	JTBC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718353

155	2015. 01. 10	중앙 일보	[바로잡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기사	http://article.joins.com/news/ article/article.asp?total_ id=16899239&ctg=
156	2015. 01. 11	금강 일보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http://www.ggilb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210569
157	2015. 01. 11	금강 일보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http://www.ggilb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210599
158	2015. 01. 12	한국 경제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hankyung. com/news/app/newsview. php?aid=2015011210937
159	2015. 01. 12	한국 경제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hankyung. com/news/app/newsview. php?aid=2015011291717
160	2015. 01. 12	제주의 소리	[반론보도문] 기독교복음 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http://www.jejusori.net/? mod=news&act=article View&idxno=157032
161	2015. 01. 13	금강 일보	<보도문>기독교복음 침례회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http://www.ggilb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210819
162	2015. 01. 13	MBC 뉴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유병언 前회장 관련 추후 보도와 반론(영상뉴스)	http://imnews.imbc.com/ replay/2015/nw1800/ article/3605854_14761.html

163	2015. 01. 14	SBS CNBC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추후 보도와 반론	http://sbscnbc.sbs.co.kr/ read.jsp?pmArticleId= 10000714121
164	2015. 01. 14	SBS뉴스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추후 보도와 반론(영상뉴스)	http://news.sbs.co.kr/ news/endPage.do?news_ id=N1002784799
165	2015. 01. 14	뉴스1	신엄마(신명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news1.kr/articles/ 2044633
166	2015. 01. 14	뉴시스	신엄마(신명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newsis.com/ ar_detail/view.html?ar_id= NISX20150113_00134115 58&clD=10201&pID=10200
167	2015. 01. 14	시사 포커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sisafocus.co. kr/news/articleView.html? idxno=114516
168	2015. 01. 15	천지 일보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newscj.com/ news/articleView.html? idxno=273190
169	2015. 01. 16	아시아 경제	[정정·반론보도문]기독교 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http://view.asiae.co.kr/ news/view.htm?idxno= 2015011613372973129
170	2015. 01. 16	MBN	[정정보도문] '구원파 울릉도 추락사' 관련 정정보도	http://mbn.mk.co.kr/pages/ news/newsView.php? category=mbn00009 &news_seq_no=2174603
171	2015. 01. 19	내일 신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naeil.com/ news_view/?id_art=136165

172	2015. 01. 21	대구 일보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http://www.idaegu.com/ ?c=5&uid=309483
173	2015. 01. 21	국제 신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http://www.kookje.co.kr/ news2011/asp/newsbody. asp?code=0300&key=20 150121.99002160653
174	2015. 01. 23	뉴시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newsis.com/ ar_detail/view.html?cID= &ar_id=NISX20150121_ 0013429174
175	2015. 01. 24	환경 TV	[반론보도]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보도 건	http://greenpostkorea.co.kr/ news/article.html?no=43981
176	2015. 01. 26	경제 풍월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http://www.econotalking. kr/news/articleView. html?idxno=127660
177	2015. 01. 26	경제 풍월	[유병언 전 회장의 장학생설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http://www.econotalking. kr/news/articleView. html?idxno=127661
178	2015. 01. 26	경제 풍월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http://www.econotalking. kr/news/articleView. html?idxno=127659
179	2015. 01. 26	뉴데일리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newdaily. co.kr/news/article. html?no=232336
180	2015. 01. 27	한강 타임즈	[유병언 전 회장 관련 4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http://www.hg-times. com/news/articleView. html?idxno=80265

181	2015. 01. 27	경남 신문	[반론보도문] 기독교복음침례 회 관련 반론보도문	http://www.knnews.co.kr/ news/articleView.php? idxno=1137985&gubun
182	2015. 01. 27	FACT TV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http://facttv.kr/facttvnews/ detail.php?number= 9301&thread=21r03
183	2015. 01. 28	미디어 워치	[반론보도]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문	http://mediawatch.kr/ news/article.html?no= 247610
184	2015. 01. 28	미디어 워치	[정정 및 반론보도]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mediawatch.kr/news /article.html?no=247609
185	2015. 01. 29	시민 일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 및 정정 보도문	http://www.siminilbo.co.kr /news/articleView.html?i dxno=386196
186	2015. 01. 30	대전 일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www.daejonilbo.com /news/newsitem.asp?pk_ no=1155763
187	2015. 01. 30	MBN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mbn.mk.co.kr/ pages/news/newsView. php?category=mbn00009 &news_seq_no=2192010
188	2015. 02. 03	광주 일보	‘구원파 신도, 유병언 도피 지원’ 관련 알려왔습니다	http://www.kwangju.co.kr /read.php3?aid=1422955 911543054006
189	2015. 02. 03	무등 일보	반론보도문-기독교복음 침례회	http://www.honam.co.kr/ read.php3?aid=14228892 00459777001

190	2015. 02. 05	조선 닷컴	신엄마(신명희)' 관련 반론 보도문	http://news.chosun.com/ site/data/html_dir/2015/02 /04/2015020402696.html
191	2015. 02. 06	충청 일보	알려왔습니다	http://www.ccdailynews. com/news/articleView. html?idxno=755051
192	2015. 02. 08	동아 닷컴	유병언 전 회장 및 기복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news.donga.com/3/ all/20150208/69532654/2
193	2015. 02. 10	JTBC	알림 :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	http://news.jtbc.joins.com/ article/article.aspx?news_ id=NB10761671&pDate= 20150210
194	2015. 02. 11	채널A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news.ichannela.com /society/3/03/20150211/ 69586763/1
195	2015. 02. 12	동아 닷컴	'신엄마'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http://news.donga.com/3/ all/20150212/69610304/2
196	2015. 02. 12	MBN	[정정보도문] '신엄마(신명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mbn.mk.co.kr/ pages/news/newsView. php?category=mbn00009 &news_seq_no=2209718
197	2015. 02. 12	연합 뉴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회장 관련 정정· 반론 보도문	http://www.yonhapnews. co.kr/bulletin/2015/02/11/ 0200000000AKR2015021 1136300034.HTML? from=search
198	2015. 02. 12	JTBC	[알림]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http://news.jtbc.co.kr/html /949/NB10765949.html

199	2015. 02. 13	한국기독교 공보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반론 및 정정 보도문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98
200	2015. 02. 16	노컷 뉴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nocutnews.co.kr/news/4369401
201	2015. 02. 16	SBS CNBC	신엄마(신명희) 관련 반론 보도문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20186
202	2015. 02. 26	천지 일보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615
203	2015. 02. 27	레디앙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과 반론	http://www.redian.org/archive/84661
204	2015. 03. 05	기호 일보	[정정 및 반론]기독교복음침 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7047
205	2015. 03. 19	TV조선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9/2015031990129.html
206	2015. 03. 19	YTN	[고 유병언 전 회장 밀향설 등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http://www.ytn.co.kr/_ln/0103_201503191201069707
207	2015. 03. 27	교회와 신앙	[기독교복음침례회 반론] <교회와신앙> 기사를 읽고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03

208	2015. 04. 01	조선 닷컴	[반론보도문] On 'Evangelical Baptist Church' articl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1/2015040102017.html
209	2015. 04. 03	국제 뉴스	유병언 전 회장 일가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652
210	2015. 04. 13	FACT TV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0371&thread=21r03
211	2015. 04. 14	코나스넷	[유병언 前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41172
212	2015. 04. 15	경제 풍월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http://www.econotalk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28285
213	2015. 04. 15	경제 풍월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http://www.econotalk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28286
214	2015. 04. 16	주간 동아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5/04/16/201504160500008/201504160500008_1.html
215	2015. 04. 29	MBN	[‘박수경 씨’ 관련 정정보도문]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324495
216	2015. 04. 30	동아 닷컴	박수경 씨 관련 정정보도문	http://news.donga.com/3/all/20150430/70996673/2

217	2015. 04. 30	채널A	[박수경 씨 관련 정정보도문]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50430/70998192/1
218	2015. 04. 30	조선닷컴	박수경 씨 관련 정정보도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30/2015043001657.html
219	2015. 05. 11	일요신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보도2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25717
220	2015. 05. 15	일간스포츠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보도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810458&clcc=
221	2015. 05. 15	JTBC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888848
222	2015. 05. 26	더팩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보도	http://news.tf.co.kr/read/life/1530525.htm
223	2015. 05. 29	천지일보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①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383
224	2015. 05. 29	천지일보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②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384
225	2015. 06. 01	동아닷컴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 보도문	http://news.donga.com/3/all/20150602/71592012/1

226	2015. 06. 01	시사 포커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95
227	2015. 06. 03	Korea Herald	Corrections and official statement by EBC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50603000690
228	2015. 06. 11	Yonhap New Agency	Corrections and official statement by EBC	http://english.yonhapnews.co.kr/national/2015/06/11/0302000000AEN20150611419200047.html
229	2015. 06. 11	국민 일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537199&code=61171111
230	2015. 06. 16	아이뉴스 24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03540&g_menu=050300
231	2015. 06. 24	경기 신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000
232	2015. 07. 02	동양 일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775
233	2015. 07. 03	내일 신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56649

234	2015. 07. 06	서울 경제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 보도문	http://economy.hankooki.com/page/opinion/201507/e2015070615465848010.htm
235	2015. 07. 13	경기 일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995972
236	2015. 07. 13	메트로 신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acd=2015071300023
237	2015. 07. 13	연합 뉴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3/0200000000AKR20150713106100034.HTML
238	2015. 07. 24	뉴스1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2	http://news1.kr/articles/2344274
239	2015. 07. 24	머니 투데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2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72422358245360&type=1
240	2015. 07. 27	시사 저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002
241	2015. 08. 21	PBC 평화방송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88885&path=201508

242	2015. 08. 21	PBC 평화방송	[평화방송 기독교복음침례회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www.pbc.co.kr/ CMS/news/view_body. php?cid=588885&path= 201508
243	2015. 08. 25	아시아 뉴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http://www.anews.com/ detail.php?number= 879664&thread=09r02
244	2015. 08. 28	이데일리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http://www.edaily.co.kr/ news/newsRead.edy?SCD =JG31&DCD=A00703& newsid=02266486609471912
245	2015. 09. 04	뉴스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http://www.newsen.com/news_ view.php?uid=2015090414084 72341&search=title&searchstring =%B1%E2%B5%B6%B1%B3 %BA%B9%C0%BD%C4%A7 %B7%CA%CB%B8%20

2. 주요 언론사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앞에서 소개한 245개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목록 가운데 지상파, 주요 일간지, 종편, 인터넷 언론 중 주요 언론사 13곳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선정하여 소개한다.

뉴스1



■ 2015년 7월 24일 뉴스1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고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탁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리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뉴스



■ 2015년 4월 3일 국제뉴스

[유병언 전 회장 일가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세월호 참사 이후 유 전 회장 일가 관련 보도에 대하여 장남인 유대균 씨는 도피 과정에서 당뇨 증상이 있어 주치의를 대동하거나 해외 밀항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대균 씨는 고의로 체중을 올려 병역을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강남 모 카페에서 발견된 고급 시계는 유대균 씨가 직접 만든 수제품이었으며, 박수경 씨는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단순 조력자에 불과하며 내연관계 설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유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는 LA근교 모 리조트나 캐나다 벤쿠버 등 일부 해외 부동산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혁기 씨는 금수원에서 유 전 회장으로부터 '종말론'을 주제로 한 설교연습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가 소유했다고 보도된 200억 상당 부동산의 상당 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만든 영농조합의 소유이며, 고가의 슈퍼카를 수집하듯 사 모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TV조선



■ 2015년 3월 19일 TV조선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와 일일이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TV조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과 합의를 통해 통합 정정 및 반론 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와 유병언 전 회장의 오대양 사건 및 5공 정권 연루설에 대해

인천지검은 지난 2014년 5월 21일 공문을 통해 '과거 2차례 수사 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과 관계됐거나, 5공정권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보도에 대하여

구원파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교리를 가졌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교단은 그러한 교리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3. 구원파의 살인집단 운영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 등의 내용을 보도했으나, 해당 교회는 출입이 자유로운 곳으로 이탈자를 감시 미행하는 팀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으며, 금수원에 땅굴이나 지하병커가 있다

는 보도도 검찰 수사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4.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은 대부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해 의사자로 지정된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만 구원파 신도였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1981년에故 권신찬 목사에 의해 창립됐으며, 유병언 전 회장은 극동방송 선교사들에게 목사 안수를 받긴 했지만 구원파의 교주 또는 총수였거나 목사가 없는 평신도회에서 목회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및 밀향, 망명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했다는 등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유 전 회장의 해외 망명 및 밀향 시도는 사실 무근으로 확인됐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에 대해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50억 상당의 골프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세모그룹도 정상적인 회생 절차를 거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유족들은 '세월호'의 이름은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

린아이’를, 기업이름인 ‘세모’는 ‘삼각형’을, 안성의 ‘금수원’은 짐승을 뜻하는 ‘금수’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따온 뜻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끝으로, “TV조선은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구원파 신도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향후에도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보도로 언론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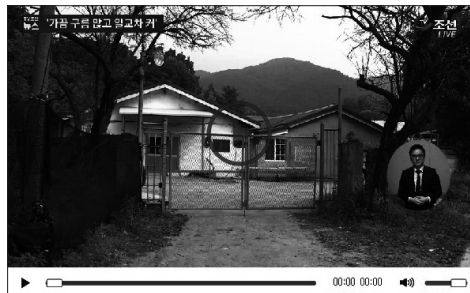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은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 2015년 3월 20일 TV조선

[뉴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해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보도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의 오대양 사건 연루설, 5공 정권 유착설, 정관계 로비설, 해외 밀항 및 망명 시도설은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으며, 금수원 내에 지하땅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준석 선장 등 먼저 퇴선한 세월호 승무원들은 구원파 신도가 아니며, 유 전 회장은 구원파의 ‘교주’나 ‘목사’로 활동하지 않았고, 작가명인 ‘아해’는 어린아이, 세월호의 ‘세월’은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탈퇴 신도를 감시 미행하는 팀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이 특정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님을 밝혀왔습니다.





■ 2015년 2월 13일 JTBC

[알림_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1.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사원이나 회장임을 확인할 근거가 없고 실소유주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 유 전 회장이 전남 지역의 항구를 통해 밀항을 시도했다거나, 구원파가 도피를 조직적으로 지원했고, ‘가짜 유병언’ 연막 작전을 펼치고, 유 전 회장이 신도들에게 휴대폰을 이용해 도피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전남 순천에서 숨진채 발견됨으로써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유 전 회장이 법조계에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정관계 비호나 유착도 확인된 바 없다”고 검찰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4.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이 수천억 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유 전 회장 측은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재산 규모는 구원파 소유의 영농조합과 부동산을 포함한 때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5. 유 전 회장이 프랑스 문화계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전시회를 열었다는 보도에 대해 “유 전 회장이 기부금을 낸 것은 사실이나 전시회는 예술성을 인정 받아 개최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6. 오대양사건의 배후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이고 유 전 회장이 5공 정권과 유착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은 공문을 통해 관련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원파 측은 “유 전 회장은 본 교단의 교주가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7. 유 전 회장 일가가 신협을 사금고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금고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8. 세모타운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영농조합에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보도에 대해 “영농조합은 신도들이 유기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만든 곳이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소유가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9. 김엄마, 신엄마 등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했고, ‘엄마’라는 호칭이 교단에서 지도자급이라고 보도했으나 “신엄마 등은 평신도일 뿐 특정한 직책이나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 금수원 안 폐열차를 하계수양회 등에 숙소로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생태 공원 조성 시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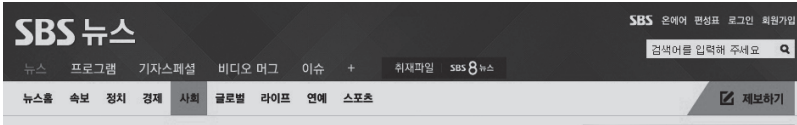
■ 2015년 2월 12일 연합뉴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회장 관련 정정·반론 보도문]

연합뉴스는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 중 유 전 회장의 해외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 시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나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추정 재산 중 상당 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만든 영농조합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교주나 구원자, 목사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교단 측이 알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교단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으로써 교단 신도들의 조직적 도피 지원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로 소위 '김엄마'나 '신엄마'가 신도들의 도피 지원 총괄을 맡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김혜경 씨는 유 전 회장의 비서로 재직하거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고, 높낮이모임은 유 전 회장의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들의 친목모임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밖에 유 전 회장이 오하마나호의 매각 지시나 세월호 증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이 신도들의 재산을 착취하여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도 알려왔습니다.



2015년 1월 14일 SBS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추후 보도와 반론]

SBS는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가운데,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오대양 사건에 관련돼 있고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신도인 '김 엄마'와 '신 엄마'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고,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신도가 아니며, 청해진해운 직원 가운데 신도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실소유주'라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 재산으로 추정된 2400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만든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 2015년 1월 12일 한국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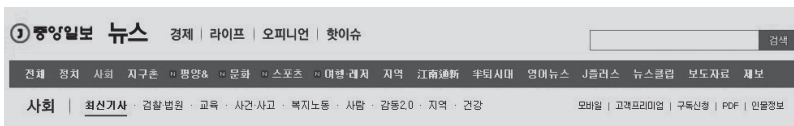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지난 6월 3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검찰 수사 결과 유 전 회장이 해외 정치적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비상탈출용 땅굴이나 은신용 토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시점이 확인됨에 따라 신도 '신엄마'와 '김엄마'가 유 전 회장의 도피 지휘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으며, 해당 교단은 특정 개인을 추종한 사실이 없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평신도 중심의 교단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보유하거나 4대 보험 또는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세월호 참사 주범'이라 할 수 없으며, 신 모 씨가 유 전 회장의 개인비서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해 온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중앙일보



■ 2015년 1월 9일 중앙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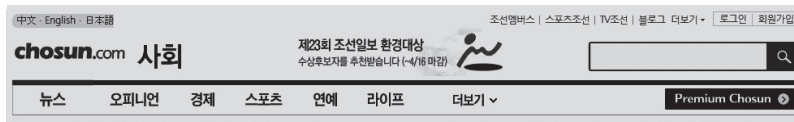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말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조선일보



■ 2014년 12월 26일 조선일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들에 대해 조선닷컴은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을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금수원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금수원의 폐쇄성과 반사회적 분위기를 보도하였으나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은 금수원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여 폐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혀왔습니다.

6.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과 달리 '세월호'의 이름은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의 '금수원'은 '짐승'을 뜻하는 '금수'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한 '비단 금, 수놓을 수'의 뜻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유병언 전 회장의 해외 망명 및 밀항 시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의 해외 망명이나 밀항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아일보



■ 2014년 12월 26일 동아일보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세월호 참사 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으나, 유 전 회장은 망명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유 전 회장에게 한금하는 것이 천국가는 길이라는 교리를 주장한 바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유 전 회장측은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가 아니고, 2400억 재산 상당 부분은 교단 신도들 영농조합 소유이며, 세월호의 세월은 ‘흘러가는 시간’ (歲月)을, 유 전 회장 작가명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유 전 회장은 교주로 추앙받은 사실도 없으며, 세월호 증축이나 오하마나호의 매각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한강 유람선을 경영하던 당시 과적이나 정원초과를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은 정관계 비호 세력이 없으며 ‘높낮이모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친목모임이고, 각계 각층의 교단 신도들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비호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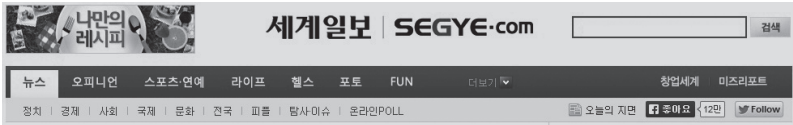
■ 2015년 2월 8일 동아일보

[유병언 전 회장 및 기복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세월호 참사 후 관련 보도 내용 중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오대양 사건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일부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유병언 전 회장은 '루브르 등에서 사진 전시회를 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없으며, 특정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무기류는 수집용으로 실사용이 불가능하고 김혜경씨는 유 전회장의 재산관리인이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 전 회장의 도피 계획을 총괄했다고 알려진 '김엄마'는 교단 소속의 평신도일 뿐 특별한 직책이나 역할을 맡은 바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가 필요없다거나 신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교리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세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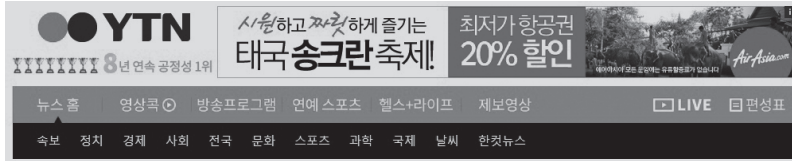
■ 2014년 12월 8일 세계일보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기사에서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그 배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에 대해 인천 지방검찰청은 공문에서 오대양 사건이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 자살이 구원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어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유 전 회장은 높낮이모임을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해외에 어떤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4년 12월 5일 YTN

[구원과 관련 정정 및 반론]

YTN은 지난 4월 23일 사회면에서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직원 상당수가 구원파 즉,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보도된 바와 달리 금수원은 고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소유가 아니라 기독교복음침례회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보도 내용과 달리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죄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한 번 구원 받으면 잘못을 저질러도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사업과 종교를



동일시하는 교리는 없고,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가르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금수원에 고 유병언 전 회장이 기거한 사실은 있으나 금수원이 그의 자택은 아니었고, 금수원 내에 소규모 기숙사가 있기는 하나 신도들이 집단생활을 할 정도는 못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은, 고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 목사로 재직했다는 YTN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기독교복음침례회 일부 신도들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압력, 보복 때문에 검찰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YTN 보도 내용과 달리,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은 이들에게 압력, 보복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고 유병언 전 회장이 경북 청송 등지에서 대규모 부동산을 매입해 신도들이 모여 사는 왕국을 건설하려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 왔습니다.

노컷뉴스



■ 2014년 11월 26일 노컷뉴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21일 홈페이지 <뉴스> 섹션 <세월호 실소유주 재산 얼마나 되나?> 제하 등의 기사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목사로 있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1987년 오대양 사건에 연루되었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청해진해운 직원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이며,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자산 가치가 2,400억 원대이고 국제영상·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이고 유 전 회장이 구원파를 통해 노동·임금착취를 했고 구원파 교리 상 교단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 인천지방검찰청의 공문 확인결과, 검찰 수사에서 오대양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 전 회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어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노동·임금착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유 전 회장은 2009년 이후로 국제영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경영에도 관여한 바 없어 국제영상 및 노른 자소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사가 아니고, 교리 중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라는 내용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5년 2월 26일 노컷뉴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의 지난 5월 6일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구원파 신도, 인천지검 앞 종교 탄압 반대 집회> 제하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5공 정권의 비호설, 세모그룹 회생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설 및 정치적 망명·밀항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탈퇴신도를 미행·감시하는 팀이 교단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특정 개인을 교주로 추종한 사실이 없고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해당 교단 신도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김엄마'와 '신엄마'가 해당 교단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교단에서 '엄마'는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등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낮이 모임'을 통해 유 전 회장이 관련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세월호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3.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현황

세월호 참사 5일 후인 2014년 4월 21일부터 모든 언론사들은 일제히 구원과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2014년 9월 중순에 이르러서는 310여 개 언론사들의 85,000여 건의 기사가 수집되었다. 그 중 16,000여 건의 오보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접수가 진행됐다.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일간지, 인터넷언론 등 다양한 언론사들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리가 진행되었다. 아래는 언론중재위원회 (<http://www.pac.or.kr>)에서 공개한 통계를 편집한 자료이다.

① 조정 신청 통계

다음 통계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도자료에 게재된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 2014년 8월부터 총 몇 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은 2014년 8월에 시작하여 9월 말에 ‘구원과 관련’ 85,000여 건의 보도에 대한 분류를 마쳤다. 그 중에 18,000여 건의 오보를 분류하여 이를 2014년 10월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첫 번째 도표는 2013년과 2014년의 언론중재위원회 접수 건수를 비교한 통계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총 조정 신청 건수에서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전체 건수 중 ‘구원과 보도’에 대

한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비교하여 2014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조정 신청 건수는 8배 가까이 높아졌으며, 그 이유는 2014년 신청 건의 8분의 7인

16,117건의 ‘구원파 관련’ 건수가 반영된 결과이다.

2014년 ‘구원파’ 관련

보도를 제외한

나머지 건수가

2,000건에서 3,000

건 사이였음을 감

안하면 세월호 참

사 이후 ‘구원파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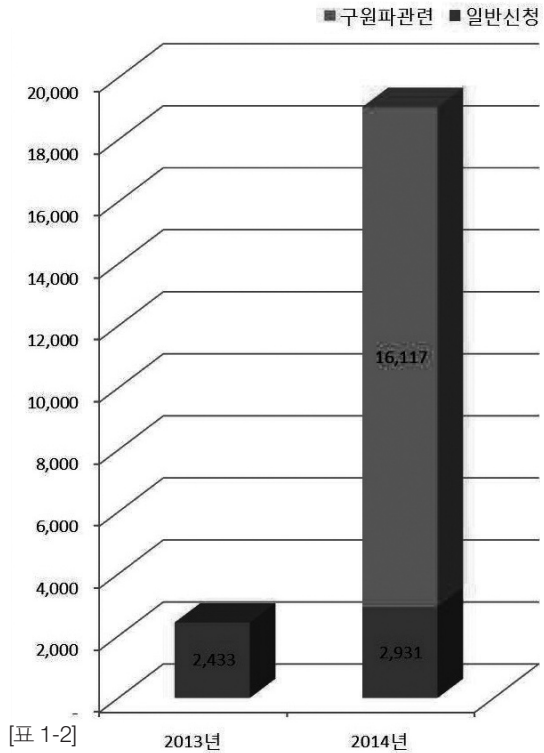
보도가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쏟아졌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년도	2013년	2014년
일반신청	2,433	2,931
구원파 관련	0	16,117

[표 1-1]



[표 1-2]

구분		신문-잡지				방송						
월별	청구 건수	중앙 일간지	지방 일간지	주간 신문	잡지	지상파		종합 유선 방송	종합 편성 채널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TV	라디오					
6	200	23	24	13		7			2	5	117	9
7	289	13	28	11		8	3		25	11	166	24
8	325	18	14	4	2	6	1	15	26	23	165	51
9	273	11	11	8	3	15		4	9	15	172	25
10	5,302	225	27	3		199	2	282	462	397	2,622	1,083
11	5,864	479	31	35		169	1	359	467	334	2,819	1,170
12	5,686	324	15	8	25	641		704	724	261	1,185	1,617

[표 2]

[표 2]는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개한 2014년 월별 통계이다. 이 통계를 통해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구원파’ 관련 보도에 대한 대응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310여 개 언론사의 총 8만 5,000여 건 가운데 ‘구원파’ 관련 기사에 대한 분류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10월부터 오보로 분류된 1만 6,000여 건에 대해 보도 날짜순으로 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2014년 9월까지 월 평균 200건에서 300건에 불과하던 조정 신청 건수가 10월부터

5,000건을 넘음으로써 20배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 신청한 언론 및 방송사 등 신청 대상 또한 모든 매체에 걸쳐 있음을 보여준다. KBS·MBC·SBS 지상파 3사를 비롯하여 TV조선과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연합뉴스, 뉴스1 등 뉴스통신사,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 중앙일간지와 매일신문,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지방일간지 그리고 신문사닷컴 등의 인터넷신문과 방송사닷컴 등의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까지, 그 접수 대상이 모든 매체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조정 현황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14년 10월부터 1만 6,000여 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신청들은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각기 언론사가 속한 지역 중재부에 배당되어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에서 조정이 진행되었다. 이 결과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위의 아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1]은 전체 1만 6,000여 개의 조정 신청 건수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정 성립은 언론사가 신청인(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등)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서 상호간 원만하게 합의한 숫자이다. 1만 6,117건의 신청 건수 중 1만 5,503건이 조정성립이 되어 200여 건의 넘는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이 신문과 방

송 그리고 인터넷에 게재되었다.

‘조정성립’란의 ‘조정 후 취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하에 신청인 측과 언론사 측이 당사자간의 합의서 작성을 통해 합의된 경우다. 취하는 양측이 동의한 항목과 보도문 그리고 확정된 기사 목록이 반영된 합의서에 양측 대표의 직인을 찍어서 마무리한 뒤, 신청인 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취하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조정성립’란의 ‘조정성립’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에 대한 정식 심리를 부장 판사, 전직 언론인, 대학교수 등 5명의 중재위원들이 진행하여 성립된 경우이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중재위원들의 직권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결정한 경우이다.

‘기각’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접수된 조정 신청에 대해 예비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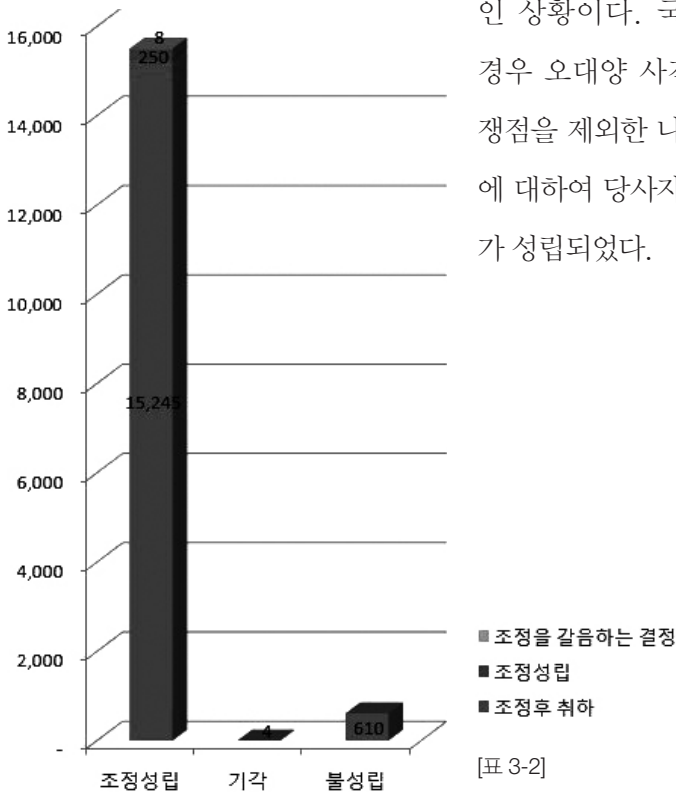
[표 3-1]

구분	비율	합계	세부내용	건수
조정성립	96.19%	15,503	조정 후 취하	15,245
			조정성립	25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8
기각	0.02%	4		
불성립	3.78%	610		
합계	100%	16,117		

를 진행하여 조정할 정식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다. 이렇게 ‘기각’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하며 1만 6,000여 건의 조정 신청의 대부분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식 조정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불성립’은 언론중재위원회 심리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다. 610건의 대다수는 KBS와 국민일보의 오보에 대한 조정 신청 건수로 향후 법적인 조치를 검토 중

인 상황이다. 국민일보의 경우 오대양 사건 등 일부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되었다.



[표 3-2]

[표 4]의 조정 결과 건수 또한 조정 신청 건수와 마찬가지로 10월부터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10월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조정 결과 건수는 2014년 11월부터 급증한다. 이 달부터 ‘취하’ 건수가 많아진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언론사와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정정이 가능케 되었으므로 합의서 작성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한 경우이다.

두 번째는 한 언론사에 대한 청구 건수가 많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수백 건의 조정 신청을 신청 취지 변경을 통해 한 건으로 묶어서 조정 심리를 진행하고, 나머지 사건은 취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신청 취지가 변경된 사건이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언론사는 통합 정정 및 반론 보도문 게재와 함께 해당 기사들은 삭제, 수정 또는 보도문의 하단게재가 진행 되었다.

[표 4] 2014 월별 조정 결과 현황

구분 (월별)	청구명	청구 건수	본안 심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취하	
							심리 전	심리 중
7월	정정	166	42	24	2	14	47	-45
	반론	26	5	3			1	
	추후	3	2	2				
	손배	94	30	17	2	10	23	-22
소 계		289	79	46	4	24	71	-67
8월	정정	166	86	48	4	18	61	-54
	반론	8	2				3	-3
	추후	10	10	4		6		
	손배	141	54	29	2	21	5	-4
소 계		325	152	81	6	45	69	-61
9월	정정	133	41	21	1	14	8	-3
	반론	22	10	7		2	3	
	추후	17						
	손배	101	21	10	1	6	2	
소 계		273	72	38	2	22	13	-3

10월	정정	2,670	78	20		10	42	-30
	반론	17	4	2		2	2	-2
	추후	11	6	6			3	-3
	손배	2,604	72	20	3	6	33	-21
소 계		5,302	160	48	3	18	80	-56

11월	정정	4,448	46	21	9		390	-202
	반론	22	8	7			1	-1
	추후	25	1				2	-2
	손배	1,369	39	17	8		201	-87
소 계		5,864	94	45	17		597	-292

12월	정정	4,692	18	5		1	293	12
	반론	30	5	5			6	
	추후	19	0					
	손배	1,008	13	4		1	41	8
소 계		5,686	36	14		2	340	20

4. 언론사별 합의 진행 현황

2014년 8월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 16,000여 건의 기사를 조정 신청하였다. 이 기사들은 언론사 별로 다양한 형태로 합의가 진행되어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이 게재되었으며 해당 기사는 하단 게재나 삭제 또는 수정 처리되었다. 유형 별로 정리하면 접수된 기사에 대해 일괄 합의 의사가 있는 언론사의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서 당사자간 합의를 진행한 곳이 63곳이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거쳐서 해당 오보를 일괄 합의한 언론사는 14곳이다. 또한 일부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거친 이후 나머지 기사에 대해 일괄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진행한 언론사는 25곳이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전에 보도 게재 및 해당 기사의 삭제 등으로 사전 이행한 언론사는 41곳이다. 2015년 6월 25일 기준 143개 언론사가 합의를 완료하였다. 합의가 완료된 언론사는 다음과 같다.

구분	개수
당사자간 일괄 합의	63
언론중재위원회 일괄 합의	14
언론중재위원회 & 당사자간 합의	25
언론중재위원회 사전 이행	41
총계	143

1) 당사자간 일괄 합의 언론사 리스트

순번	언론사	담당중재부	합의일
1	경기신문	경기	2014. 12. 10
2	경제풍월	1부	2015. 04. 23
3	경향신문	1부	2014. 12. 04
4	교회와신앙	1부	2014. 12. 10
5	국민일보	5부	2014. 05. 21
6	국제뉴스	6부	2014. 10.
7	기독교공보	1부	2015. 02.
8	내일신문	6부	2015. 01. 16 2014.12
9	뉴데일리	1부	2014. 12. 18
10	뉴스1	1부	2014. 11. 28
11	뉴스엔	1부	2014. 12. 08
12	뉴스웨이	6부	2014. 11. 14
13	뉴스타운	8부	2014. 11. 27
14	뉴스핍	5부	2014. 12. 04
15	대전일보	대전	2015. 01. 22
16	데일리안	5부	2014. 12. 01
17	데일리한국	7부	2014. 09. 26
18	동양일보	대전	2014. 12. 16

19	매경닷컴	5부	2015. 01.
20	매일경제신문	5부	2015. 01. 13
21	머니위크	5부	2014. 12. 17
22	머니투데이	1부	2015. 03. 17
			2014. 11. 21
23	미디어펜	1부	2014. 11. 05
24	법률신문	1부	2014. 12. 17
25	브레이크뉴스	6부	2014. 11. 17
26	서울경제신문	5부	2014. 12. 09
27	스포츠월드	5부	2014. 11. 27
28	스포츠조선	8부	2014. 11. 27
29	스포츠투데이	1부	2014. 11. 05
30	시민일보	6부	2015. 01. 23
31	시사위크	1부	2015. 04. 22
32	시사저널	1부	2014. 12. 10
33	시사포커스	6부	2015. 01. 14
34	아시아경제	5부	2014. 11. 17
35	아시아뉴스통신	경기	2014. 12. 18.
36	아시아투데이	6부	2014. 12. 22
37	아주경제	1부	2014. 11. 05
38	엑스포츠뉴스	6부	2014. 11. 05

39	연합뉴스	6부	2015. 02.
40	울산매일신문사	부산	2014. 11. 19
41	위키�트리	1부	2014. 11. 17
42	이뉴스투데이	8부	2014. 12. 02
43	인천일보	경기	2014. 12. 12
44	일요서울	1부	2015. 10.
45	일요시사	1부	2014. 11. 18
46	제주의소리	8부	2015. 01
47	주간경향	1부	2014. 12. 19
48	중부일보	경기	2014. 12. 11
49	천지일보	1부	2015. 06
50	티브이데일리	6부	2014. 12. 11
51	파이낸셜뉴스	8부	2014. 12. 10
			2015. 02. 04
52	평화방송	1부	2014. 12. 24
53	폴리뉴스	6부	2014. 11. 13
54	한국경제TV	5부	2014. 11.
55	한국일보	7부	2014. 11. 07
56	헤럴드경제	5부	2014. 12. 08
57	MBC	6부	2015. 01.
58	MBN	7부	2014. 12. 19

59	OBS	경기	2015. 02. 27
60	OSEN	1부	2014. 11. 17
61	SBS	6부	2015. 01.
62	SSTV	1부	2014. 12. 24
63	TV조선	7부	2015. 03. 17

2) 언론중재위원회 일괄 합의 언론사 리스트

순번	언론사	담당중재부	합의일
1	광주일보	광주	2014. 10. 29
			2015. 01. 29
2	뉴스토마토	5부	2014. 11. 04
3	뉴시스	8부	2014. 10. 30
			2014. 12. 10
			2015. 01. 21
4	디지털타임스	-	2014. 12. 11
5	디트뉴스24	대전	2014. 10. 31
6	마이데일리	8부	2014. 11. 19
7	무등일보	광주	2015. 01. 29
8	미디어스	5부	2014. 12. 02

9	오마이뉴스	7부	2014. 09. 05
10	이투데이	8부	2014. 12. 10
11	중부매일	청주	2014. 11. 05
12	충남일보	-	2015. 01. 16
13	프레시안	5부	2014. 09. 05
14	현대중교	1부	2015. 01. 28
			2015. 06. 15

3) 언론중재위원회 & 당사자간 합의 언론사 리스트

순번	언론사	담당중재부	합의유형	합의일
1	경기일보	경기	당사자	2015. 01. 05
			언중위	2014. 12. 04
2	경인일보	경기	당사자	2014. 12. 17
			언중위	2014. 12. 04
3	경제투데이	5부	당사자	2014. 11. 26
			언중위	2014. 11. 11
4	국제신문	부산	당사자	2015. 01. 28
			언중위	2014. 11. 04
				2014. 11. 25
				2014. 12. 16

5	기호일보	경기	당사자	2015. 01. 12
			언중위	2014. 12. 04
6	노컷뉴스	8부	당사자	2015. 02. 11
			언중위	2014. 11. 19
7	뉴스Y	7부	당사자	2014. 12.
				2015. 01. 23
			언중위	2014. 09. 12
				2014. 09. 12
8	동아일보	6부	당사자	2014. 12. 23
			언중위	2014. 08. 08
				2014. 09. 05
				2014. 09. 05
9	매일신문	대구	당사자	2015. 01. 22
			언중위	2014. 10. 30
10	메트로신문	5부	당사자	2014. 12. 10
			언중위	2014. 11. 04
11	문화일보	5부	당사자	2014. 12. 12
			언중위	2014. 11. 04
12	부산일보	부산	당사자	2015. 01. 28
			언중위	2014. 11. 25

13	서울신문	7부	당사자	2015. 01. 02
			언중위	2014. 08. 22
14	세계일보	6부	당사자	2015. 01.
			언중위	2014. 08. 22
			언중위	2014. 12. 02
15	스타뉴스	5부	당사자	2014. 12. 16
			언중위	2014. 11. 11
16	이데일리	8부	당사자	2015. 03. 04
			언중위	2014. 12. 10
17	일요신문	1부	당사자	2014. 11. 28
			언중위	2014. 09. 26
			언중위	2014. 09. 26
18	조선일보	7부	당사자	2014. 12.
				2014. 12. 19
			언중위	2014. 08. 08
				2014. 08. 08
				2014. 08. 08
				2014. 09. 12
				2014. 09. 26
				2014. 09. 26
				2014. 09. 19

19	중앙일보	6부	당사자	2015. 01. 06
			언중위	2014. 08. 08
				2014. 09. 19
				2014. 09. 19
20	채널A	7부	당사자	2015. 01. 30
			언중위	2014. 08. 27
				2014. 08. 27
21	한국경제	8부	당사자	2015. 01. 06
				2015. 01. 06
			언중위	2014. 11. 19
22	JTBC	7부	당사자	2015. 02. 06
			언중위	2014. 08. 08
23	TBS	5부	당사자	2014. 12. 15
			언중위	2014. 11. 04
24	TV리포트	5부	당사자	2014. 12. 11
			언중위	2014. 11. 11
25	YTN	7부	당사자	2014. 11. 28
				2014. 12. 01
				2015. 03. 13
			언중위	2014. 08. 29
				2014. 09. 26

4) 언론중재위원회 사전이행 언론사 리스트

순번	언론사	담당중재부	보도문 게재일
1	강원도민일보	8부	2014. 12. 30
2	경남도민일보	경남	2014. 11. 24
3	경남신문	경남	2014. 11. 24
			2014. 12. 11
4	국방일보	.	-
5	국세신문	7부	2014. 10. 28
6	금강일보	충남	2015. 01. 12
7	대구신문	경북	2014. 11. 02
			2015. 01. 08
8	대구일보	경북	2015. 01. 15
9	더팩트	6부	2015. 05. 26
10	데일리그рид	5부	2014. 11. 17
11	레디앙	1부	2014. 12. 03
12	머니투데이방송	8부	2014. 12. 16
13	메디컬투데이	7부	2014. 10. 31
14	미디어오늘	1부	2014. 11
15	미디어워치	1부	2014. 12. 15
			2015. 01. 28

16	민중의소리	1부	2014. 12
17	스포츠경향	1부	2014. 12
18	스포츠동아	1부	2014. 10. 30
19	시사IN	7부	2014. 11
20	아이뉴스24	1부	2015. 06. 16
21	아이티투데이	5부	2014. 11
22	업코리아	1부	2014. 11. 12
23	영남일보	대구	2014. 11. 20
24	위클리오늘	1부	2014. 11. 17
25	일간스포츠	1부	2015. 05. 15
26	전자신문	1부	2014. 12. 16
27	조세일보	1부	2014. 11. 17
28	주간동아	6부	2014. 12. 11
			2015. 04. 16
29	충청일보	충북	2015. 01. 04
			2015. 02. 06
30	컨슈머타임스	7부	2014. 11. 14
31	코나스	.	2014. 12. 26
32	크리스천투데이	1부	2014. 10. 26
33	팩트TV	1부	2014. 12. 26

34	한강타임즈	.	2014. 11. 26
			2015. 01. 27
35	한겨레	1부	2014. 11. 03
36	환경TV	1부	2015. 01. 24
37	BNT	7부	2014. 10. 31
38	EBN	7부	2014. 10. 30
39	Chosun Ilbo	7부	2015. 04. 01
40	Korea Herald	6부	2015. 06. 03
41	Yonhap New	6부	2015. 06. 11

5. 기독교복음침례회 언론대응의 한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고 중재가 진행된 건수는 사상 최대 수준이며 이에 따른 합의도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교단과 신도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물질적 피해 상황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고, 잘못된 보도와 신도들이 입은 피해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도들과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파산에 이르렀거나 청산 수순을 밟고 있어, 이로 인해 상당수의 신도들이 직장을 잃었을 뿐 아니라 향후 정상적인 구직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본 교단의 언론대응은 이런 신도들의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는 활동이었기에 더욱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본 교단의 언론대응이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있는 시점에서 시작되었기에, 시기상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쏟아지는 오보로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적대적 여론과 마주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참사의 책임이 본 교단에게 전가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감정을 총체적으로 살피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상황이었음을 고백하고자 한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제도가 가지고 있는 아쉬운 점도 발견되었다.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수많은 언론사가 존재하는 매체 환경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오보가 쏟아졌을 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본 교단의 경우, 많은 신도들의 자원봉사가 없었다면 수많은 오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접수 작업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본 교단의 신도 개인이 오보로 피해를 본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였으나 일일이 대응하지 못한 것도 이런 제도적인 맹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본 교단의 언론대응이 우리 사회의 언론보도 양태를 바꾸기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언론은 이미 권언유착이 심각한 수준이며, ‘세월호 보도 참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본 교단의 언론대응과 본 백서의 발간이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이 제자리를 찾는데 미력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맺음말

처음, 2014년 4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구원파’와 관련된 모든 언론 보도에 대해 대응하자고 결정 했을 때, 모두가 그 많은 기사를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응한다고 해서 무엇이 크게 달라질까 하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억울함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그런 질문들은 일단 묻어두고 시작했습니다.

85,000여 건의 기사가 모이고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아 기사의 오보 여부를 분류하여 그 중에 13,000여 건의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 문서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입력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또한 많은 신도 분들의 자발적

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15년 2월 28일까지 16,000여 건에 대하여 각 언론사에서 200건에 가까운 정정 반론 보도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굳어져 버린 우리에게 대한 오해와 미움이 벗겨진 것도 아니고 우호적인 여론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보도…저널리즘의 침몰」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적인 언론들의 보도 행태가 개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언론대응 과정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백서를 발간하는 이 즈음에서 ‘기록’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세월호 사건과 ‘구원파’를 떠올리는 분들에게 우리에게 대한 보도는 이렇게 잘못되었노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보도가 왜 그렇게 잘못될 수밖에 없었는지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덧붙여, 이런 일련의 과정을 신도 분들과 함께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와 이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파’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받더라도 한 명의 인간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앞서 밝혔듯이 우리가 겪었던 아픔은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에 비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의 언론 대응 과정이 많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또한 앞으로 본 교단과 신도들에게 남겨진 숙제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록이 우리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피해를 막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준 신도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진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 땅의 기자들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 진리를 찾는 이 땅의 모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04.09.

기독교복음침례회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